여성시대

양희은·김일중입니다

8월
2024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대천지점 거래고객
에프엔바이오(주) 김동호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원주지점 거래고객
성지병원 문진수 병원장

IBK기업은행

실력 있는

기업들이

자신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진화된 금융으로
기업을 앞으로

ESG, 기업승계, 경영 전반의 맞춤형 컨설팅
IBK컨설팅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i-ONE JOB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M&A 중개·주선 지원
M&A 생태계 조성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3801호(2023.08.28 유효기간 2024.08.28)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융 항등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과 개선의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02-729-9490, e-mail : ibkethics@ibk.co.kr)

contents 2024년 8월호

04 **미담 디톡스 쓰담쓰담**
'내 시린 가슴을 데워주신 분들' 외

12 **이달의 편지**
'대놓고 내 자랑하기' 외

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에프엔바이오(주) 김동호 대표

7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성지병원 문진수 병원장

80 **코너 속 편지**
'무조건 무조건이야!' 외

110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작고 따스한 위로

113 **김일중의 스튜디오에서**
곱슬머리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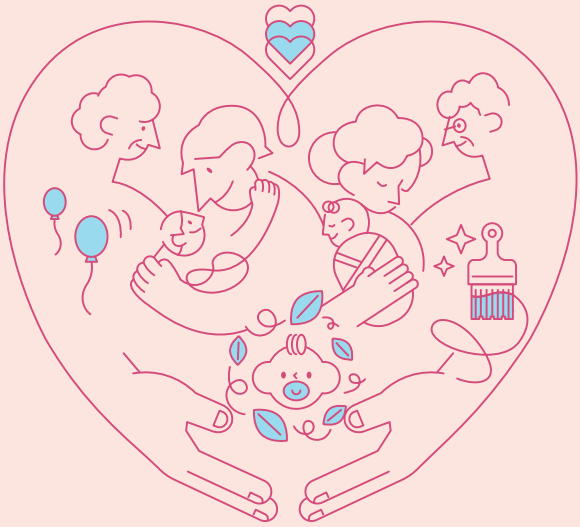
여성시대

발행일 2024년 8월 10일 **발행인** ㈜문화방송 대표이사 안형준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김일중 **프로듀서** 용승우, 전현지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이쿵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견월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미담 디톡스 쓰담쓰담



우리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지요.
생각만 해도 잔잔한 미소가 떠올려지는 미담이 있으면
여성시대로 보내주십시오.
마음속 독소를 빼내고 쓰담쓰담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린 가슴을 데워주신 분들

김은주 | 서울 강서구 화곡로

저는 20대에 서서히 근육이 소실되어 가는 희귀병으로 중증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살다가 갖게 된 장애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고 긴 시간을 방황도 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난 지금은 많이 진행돼 팔다리 근육 사용도 어려워졌고 얼마 남지 않은 기능 중 하나인 입술로 말하는 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입만 살았네~'인 거죠.

최첨단 보조기기인 입술 마우스 즉 인테그라 마우스를 사용해서 느지막이 대학교에 들어가 졸업 리포트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배우고 싶었던 사회복지사와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로 온라인상이지만 세상과 소통하며 글도 쓰고 특히 음악 듣는 걸 아주 좋아해서 가끔 콘서트도 갑니다.

근육병이 진행성이라 오늘이 진짜로 가장 건강한 날이기에 하루하루 감사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주위 많은 분의 도움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귀한 삶이기에 헛되게 살지 않으려고 하루에 한 가지라도 남을 도와주거나 보람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느림보 타자지만 오래전 배운 외국어로 도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참 뿌듯했고요, 적게나마 제가 번 돈으로 여러 단체에 꾸준히 후원하고 있습니다. 받기만 할 거 같은 나도 어딘가 누군가에게 드리고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니 참 행복해서요.

얼마 전 감사한 일이 있어서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재택근무가 끝난 오후 늦게 비가 왔지만 곧 그칠 거 같아 미뤄왔던 진료를 보기 위해 동네 병원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큰 전동휠체어

를 타고 작은 진료실에 들어가려면 한참 걸리는 데다가 질문이 많은 까다로운 환자이지만 참고 들어주고 최선의 마음으로 도와주려 애써주시던 의사 선생님과 웃으며 상냥하게 안내해 주시던 간호사님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려주시던 이웃들에게 연신 "고맙습니다~" 인사말을 전하는 참 고마운 하루였습니다.

며칠 전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엔 편의점 앞턱에 경사로가 없어 들어가지 못한 나는 휠체어를 탄 채로 우비를 입고 문밖에서 물건을 사러 들어가신 활동지원사 선생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젊은 여성분이 내 뒤에 조용히 와 자신의 우산을 들어 나를 씌어주고 계셨나 봐요.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나와서 뒤늦게 얘기해주셔서 알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벌써 저 멀리 가고 계셔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오래전 감동받았던 일도 떠오릅니다. 영등포역 부근에서 살 때 전철을 이용할 때마다 역을 끼고 위치한 백화점 주차장을 통과해서 다니곤 했었습니다. 백화점 문은 무겁고 고정이 안 되어 낑낑거리며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주차장 직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달려와 문을 열어주고는 지나갈 때까지 한참을 잡아주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젊은 직원들 모두 돌아가며 문을 열어주기로 직원회의에서 약속했다는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던 존재 같았는데 그러한 대접을 받으니 황송하고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며칠 후 작지만 음료수를 사서 전해드렸어요.

그렇게 따뜻했던 기억들이 시린 내 가슴을 데워주며 오늘 하루를 또 힘내서 살아가게 해줍니다.

엄마도 이랬구나

김진경 |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저는 사춘기 딸 둘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며칠 전 딸이 학교에서 발목이 골절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학교에서 연락받고 깜짝 놀라 데려오려 했는데 아이는 이미 학교 보건실에서 해준 발목 압박 붕대와 대여해준 목발로 집에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혼자 어떻게 왔어? 엄마가 가려고 했는데 조금만 기다리지."

더운데 등이 흠뻑 젖을 정도로 힘들게 왔을 생각을 하니 짠하더라고요. 그런데 딸은 의외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도와줬어. 세 명이서 한 명은 가방 들어주고 두 명은 옆에서 나 부축해줬어."

아파트가 경사가 심한 곳에 있는데 혹시나 우리 딸이 넘어질까 친구들이 나서서 몸으로 앞뒤에서 딸을 보호하며 집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목이 매우 아픈 상황에도 웃으면서 올 수 있었대요.

급히 병원으로 가서 골절 진단받고 깁스하고 집에 오니 '내일부터 애 등하교를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학원이야 당연히 1~2주는 못가는 상황이고 등교는 남편과 제가 출근이 늦어지더라도 데려다 줄 수 있는데 문제는 '하교'였습니다.

'혼자 가방 메고 목발 짚고 다 할 수는 없을 텐데 어쩌나….'

남편과 둘이 고민하고 있는데 방에서 딸이 부르더라고요.

"엄마~ 내일 아침에 친구 두 명이 우리 집에 온대. 걔들이랑 학교 갈게!"

6학년이 되니 애들 마음 씀씀이가 이렇게 넓어지나 놀랐습니다. 하

교도 다른 친구들이 도와주겠다고 했대요.

"엄마 아빠는 그냥 회사 가. 내가 알아서 할게. 친구들이 교대로 도와준대. 그러니까 나 믿고 회사 가."

그때부터 친구들이 교대로 딸의 학교생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학원이나 방과 후 일정을 확인하고 시간 되는 친구들이 교대로 등하교를 돕고 학교에서도 교실 이동이나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딸이 미안해서 혼자 해보려고 하면 친구들이 먼저 "그러다 더 다쳐! 그냥 우리한테 말해!" 하면서 흔쾌히 도움을 준대요.

체육시간에는 혼자 보건실에 누워있는데 좋아하는 체육을 못해서 속상하고 많은 친구가 도와주어 고맙고 그래서 혼자 눈물을 흘렸다나요.

딸에게 매일 용돈을 떡볶이 사먹을 정도로 줍니다. 등하교 하면서 친구들이랑 간식 사먹으라고요. 딸에게 제가 물었어요.

"너 깁스 풀고 나서 엄마가 친구들에게 간식 좀 돌리면 안 될까?"

"엄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가 그렇게 하면 내 뒤로 다쳐서 도움 받는 친구들은 부담되잖아. 그냥 내가 친구들이랑 해결할게. 이건 내가 해야 할 일 같아."

대체 언제 이렇게 다 큰 건지요. 아이의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해졌습니다.

제 부모님도 맞벌이여서 저도 혼자 많은 것을 해결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맹장염에 걸렸는데 식당하시는 부모님을 밤에 깨우기 미안해서 밤새 끙끙대다 아침에서야 엄마한테 말씀드려 병원에 갔어요. 더 늦었으면 복막염까지 올 뻔했다며 의사 선생님께 혼났는데 그때 엄마 아빠가 제 간병 때문에 걱정하시는 눈빛을 봤고 저는 부모님 몰래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다행히 방학 때라 친구들이 아침부터

제 병원생활을 도와줬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는 제 앞에서 라면, 과자, 빵을 먹으며 여고생 서너 명이 병실에서 깔깔대고 서로 기대서 졸기도 하고 운동해야 가스가 빨리 나온다고 아프다는 저를 다그치며 병원 옥상 공원을 수십 바퀴씩 돌기도 했습니다. 장사 마치고 오신 엄마는 서랍에 2만 원씩 넣어주셨어요. 그때는 그 돈으로 친구들이랑 과자나 떡볶이 사먹는 재미에 즐거웠죠.

요 며칠 제게 학교 얘기, 친구 얘기 하며 웃는 딸을 보며 엄마의 그때 눈빛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때 엄마도 병원에 함께 있어 주지 못해 미안하셨구나. 그래서 2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매번 챙겨주셨구나. 식당에서 일하는 내내 딸 생각을 얼마나 하셨을까. 나는 친구들이랑 노느라 철없이 즐거웠는데 우리 엄마는 눈에 미안함을 가득 담고 나를 보셨구나. 그래서 내 머리를 그렇게 많이 쓰다듬으셨구나….'

여태껏 잊고 지냈는데 그때의 엄마와 같은 입장이 되니 그때 저를 보시던 엄마의 눈빛과 마음이 생생히 떠오르고 느껴져요. 엄마가 날 키우며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애달파하며 키우셨을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제가 아이를 키우니 살면서 수시로 '엄마도 이랬겠구나.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이렇게 미안해하고 이렇게 아끼고 사랑했겠구나' 느끼게 되네요. 아마도 평생 이렇게 느끼고 배우고 깨우치고 잘할 걸 후회하겠죠.

내 엄마가 했던 것처럼 나도 우리 딸을 아끼면서 키우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딸도 씩씩하게 잘 커나갈 거라고 믿고 딸에게도 엄마에게도 '사랑한다' 표현 자주 하고 지금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일터에서

[3632] 저는 커피전문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쁠 때 손님들한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리면 '괜찮으니 천천히 해주셔도 된다'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분들 덕분에 인류애가 빵빵하게 충전됩니다.

[김지선] 저는 재래시장에서 참기름을 팔고 있어요. 더우나 추우나 일하는데 요즘 시장에 사람이 없어요. 거래처 식당들도 매출이 주는지 들어가는 양이 주네요. 자영업자들 힘냅시다.

[5438] 저는 제주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딸도 같은 일을 하고 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손가락을 많이 쓰다 보니 엄지손가락에 방아쇠증후군이란 관절염이 재발 또 재발. 수술해야 한다는데 수술하고 나면 한 달 정도 일을 쉬어야 해서 망설이고 있네요.

[강대성] 저는 전화로 상담하는 일을 하는데 말투가 상냥하고 고급진 사람이 계신 반면에 진상인 고객도 많아서 아침 출근길에 '오늘도 좋은 고객님 만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한답니다. 하루 종일 말을 많이 하다 보니 집에 가면 말없이 살고 있어서 아내가 불만이 많답니다.

[이혜경] 백화점 수입 치즈 판매 15년 차입니다. 별의별 고객이 많지요. 버터 사 가서 느끼하다고 반품, 치즈에서 냄새난다고 반품, 반쯤 먹다가 보관 잘못으로 곰팡이 났는데도 반품, 무작정 고래고래 소리부터 지르는 고객. 죄송한 게 없는데도 "죄송합니다"라고 응대해야 하는 힘듦이 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어봅니다. 스스로 토닥토닥합니다.

생방송 중 도착한 문자 모음입니다.

12 대놓고 내 자랑하기
16 삼근초등학교 생활 후기
21 사랑방 이장님과 엄마
24 복순 씨의 여행
28 아내가 좋아하는 나
32 어느 손님에 대한 걱정
36 고사리손에서 배우다
39 나는 최고가 아니야
42 '아가잘있나'
47 꼬마 농부 삼 형제
51 제게도 가족이 있었네요
56 어쩌다 불청객
59 수선가게 노인

일러스트 | **조신애**

Letter 01

대놓고 내 자랑하기

강연아 |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내가 사는 동네 평생학습원에서 수어 통역 활동가 과정 강의가 생겼다는 공고를 보고 얼른 지원했다. 대학생 때 동아리 활동으로 수어를 배웠지만 20년 넘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거의 잊고 있었는데 이 기회에 다시 배워서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활동을 하면 좋겠다 싶었다.

첫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강사님이 수어 선생님이 아니라 소통 강사님이셨다. 단지 수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만나고 대화해야 하므로 소통하는 법을 먼저 듣고 수어는 3회 차부터 배운다고 했다.

어느 정도 강의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나를 만나면 좋은 점'이라는 문구와 함께 '제이 제이 알(JJR)'이라는 영어 약자가 화면에 띄워졌다.

'제이 제이 알, 저게 뭐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강사님이 맞히면 시원한 커피 쿠폰을 쏜다고 하셨다. 나는 그런 경품에 단 한번도 당첨이 되어본 적 없지만 수년간 여성시대 뇌 풀기 퀴즈에 도전했던 터라 재빨리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제이 제이 알… 제이 제이 알… 설마 지자랑?'

설마 하며 얘기했는데 강사님이 깜짝 놀라며 정답!이라고 외치셨다.

그리곤 수강생들에게 '지 자랑'을 해보라고 하셨다. 세상에나 처음 만난 사이에 대놓고 지 자랑이라니! 게다가 우린 아직 서로의 이름도 얘기하기 전이었다. 수강생들은 모두 쭈뼛대면서 하나둘씩 지 자랑을 시작했다.

"저는 잘 웃어요."

"저는 목소리가 예뻐요."

"저는 손뜨개질을 잘해요."

"저는 다른 사람을 말을 잘 들어줘요."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동안 나는 평소 자랑이라고 해봤자 내 자랑보다는 내 아이가 이런 걸 잘한다는 걸 은근슬쩍 얘기하는 정도의 자랑이 전부였다는 걸 깨달았다.

딱히 자랑거리가 없는 것 같아 어물어물하다 내 차례가 끝난 게 영 아쉬워서 수업이 끝난 후에 난 정말 뭘 자랑할 게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내가 그나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그건 바로 꾸준함.

나는 4년 넘게 매일 만 보 걷기를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우울감을 해소하려고 걷기 시작했는데 진짜 심하게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쌓여서 위험한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걷는다.

내가 매일 꾸준히 걸을 수 있는 건 여성시대 덕분이기도 하다. 매일

여성시대를 들으면서 걸으면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참 도움이 된다. 물론 들으면서 걷다가 빵 터져서 깔깔 웃기도 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많아서 지나치는 사람들한테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게 단점 아닌 단점이긴 한데 매일 라디오를 들으며 걸은 덕분에 몸무게도 14킬로그램이나 줄었고 걷기 앱 챌린지로 한 번씩 상품권도 받으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나의 두 번째 꾸준함은 독서이다. 독서도 코로나19가 터진 후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긴 습관인데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책을 읽고 아이들 재우고도 두어 시간씩 매일 책을 읽고 잠을 잔다. 책이 너무 재밌어서 TV 볼 시간도 없고 몇 년째 한 해 150권에서 180권 정도의 책을 읽고 있다.

우리 지역 도서관에는 독서 마라톤 대회라고 책을 읽고 독서일지를 작성하면 책 페이지 당 거리를 계산해서 거리별로 완주증도 주고 완주한 순위에 따라 상도 주는데 나는 4년째 풀코스를 완주했고 시청에 가서 우수상도 받았다.

가끔 아이들이 엄마가 책에 빠져서 자기들 얘기를 못 들을 때가 있다고 책 좀 그만 읽으라고 잔소리를 하기도 한다.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도 같이 읽는다던데 아쉽게도 그건 우리 집에서는 안 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다.

나의 세 번째 꾸준함은 공부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가 그렇게도 싫더니 나이가 들수록 공부가 왜 이렇게 재미있는지 이것저것 배우는 삶이 참 즐겁다. 역사에 관심이 많아 한국사 능력 검정 심화 1급을 땄고 도서관에 자주 가다 보니 도서관에서 하는 강좌에 관심을 두게 되면서 독서 논술 지도사, 역사 논술 지도사, 북아트 지도사, 한국사 지도사 등의 자격증도 여러 개 땄다.

남편은 내가 공부하고 있으면 "넌 맨날 돈도 안 되는 공부만 하냐"며 타박이었는데 최근엔 그 자격증들로 강의도 나가게 됐다.

몇 해 전엔 점역교정사 3급 국어와 2급 영어 자격증을 따기도 했다. 여성시대에 한 시각장애인 여성분이 보낸 사연이 있었는데 비누 공방 사장님이 그분을 위해 점자를 배우고 비누 상자에 점자를 표시해서 보내줬다는 이야기였다. 그 사연을 듣고 점자에 관심이 생겨 점자 공부를 시작했고 점역교정사 3급 국어와 2급 영어 자격증을 딴 후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 몇 군데 전화했는데 당장은 할 게 없다는 답을 듣고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다 잊어버렸다는 게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런 나에게 한 달쯤 전부터는 새로운 루틴이 하나 더 생겼다. 보건소에서 하는 헬스케어 사업을 신청했는데 6개월간 매일 운동과 식사 기록을 작성하면 영양과 운동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앱에 매일 운동 종류와 시간을 기록하고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먹은 음식과 양을 적으면 칼로리가 계산되어 나오니 조금 더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난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쓰다 보니 나 자신이 조금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진다. 앞으로 수어 수업도 열심히 듣고 많이 배워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

당당이 여러분들도 JJR 시간 한 번 가져 보는 거 어떠세요.

Letter 02

삼근초등학교 생활 후기

이연미 | 경북 울진군

작년 8월 울진군 금강송면의 삼근초등학교를 홍보하는 사연을 써 소개되었던 성다누리 엄마입니다. 당시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를 구하기 위해 소개 글을 썼는데 그로부터 벌써 1년이 흘렀네요.

올해 2월에는 본교·분교에 있는 6학년 언니 오빠들이 졸업하고 신입생 한 명이 분교에 입학했습니다. 본교에도 유치원생 한 명이 입학했지요. 유치원생 두 명과 본교 세 명, 분교 여덟 명. 이렇게 학생 총수는 13명이 되었지만 여전히 학생 인원이 적어 예외 없이 교육청에서는 삼근초등학교의 폐교 및 통폐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삼근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올해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부족해 폐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향후 학생 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2~3년 후엔 또 하나의 학교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인구 문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것

입니다. 다만 금강송면이 아주 작은 마을이라 가장 먼저 이런 현상을 맞고 있는 거겠지요.

우리 딸 성다누리는 1년 동안 삼근초등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체험학습도 다니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교 삼근초등학생과 분교 옥방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행복한 딸의 학교생활을 엿보여 드리고 다누리가 즐거운 초등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딸의 소원을 지켜주고 싶어 다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요즘 딸에게는 큰 고민이 있습니다. 2학년이 되면서 절친이 없다는 겁니다. 애초에 또래 학생이 몇 없어 분식점과 편의점에서 친구랑 같이 어울려 간식을 사 먹고 멀리 놀러 가는 경험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자연적으로 또래 친구를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에는 느닷없이 "엄마~ 우리 학교가 없어진다고 그러던데 정말이야?"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디서 들었는지 아이들의 정보력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전학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나는 삼근초등학교가 너무 좋아. 전학 가기 싫어. 삼근초등학교는 최고의 학교고 체험학습도 많이 가고 선생님들도 친절하시고 방과 후 수업도 재미있고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단 말이야. 다른 학교는 자유롭지 않고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스키장도 못 가고 체험학습도 많이 안 가잖아. 수학여행도 안 가지 않아? 우리는 올해에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루현 오빠랑 현우 오빠 그리고 옥방 언니 오빠들과 재미있게 놀겠다고, 또래 친구는 태권도 학원에서 사귀면 되니 괜찮다고 다시는 전학 얘기를 꺼내지 말라는 겁니다.

울진 금강송면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금강송면은 울진에서

도 20분 거리의 외진 곳이라 일자리도 적은 편이고 아이들을 시골에서 키우려면 다른 지역보다 배움의 환경이 적습니다. 특히 교육 문제에서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시내까지 왕복 40~50분을 운전해야 하니까요. 그래도 금강송면에는 은행, 마트, 우체국, 면사무소 그리고 작은 카페가 있습니다.

다누리는 사교육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영어 학원과 미술 학원에 보내달라고 종종 조르지만 저는 태권도 학원을 제외하고는 따로 학원에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삼근초등학교에서 미술, 영어, 바이올린, 피아노, 국악 등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 4시 10분에 하교하니 학교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심지어 삼근초등학교는 복식수업을 하고 있어 2학년과 3학년이 같은 반에서 수업합니다. 그러니 아이는 어깨 너머로 3학년 수업까지 배우고 구구단도 자연스럽게 외워 왔어요. 1학년 때는 6학년 언니들 수업에서나 배우는 사자성어와 속담도 많이 배워 왔죠. 결국 복식수업으로 선행학습을 하는 셈입니다.

우리 아이는 수학을 정말 못했는데 선생님과 1 대 1로 수업하다 보니 이제는 수학을 다른 과목보다 더 잘합니다. 선생님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학교 분위기는 또 얼마나 좋은지요. 다누리가 올해 3월에는 태권도 학원에 다닌 지 1년 만에 품띠 1품을 땄습니다. 도복과 품띠를 3일 연속으로 학교에 입고 가서 학생들과 선생님들, 교장선생님에게 자랑하고 칭찬도 받았어요. 하루는 교장선생님이 출장 가셔서 오늘 보여드려야 한다고 입고 가고 또 다음날에는 분교 언니 오빠들이랑 오전 체육수업을 하는 날이니 도복을 자랑하겠다며 입고 갔습니다.

한 번은 처음으로 교장실에 가봤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교장실에 들어갈 일이 없는 학생들이 얼마나 긴장되고 신기했겠어요. 교장선생님이 관찰용 돋보기랑 초콜릿을 주셨다고 자랑도 하고 돋보기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꽃을 관찰하며 꽃 이름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다누리는 교장선생님과 2개월 동안 꽃 10개의 이름을 외어왔습니다. 그래서 들꽃왕 상장과 상품권을 받아왔어요. 이제는 꽃을 보면 꽃 이름을 척척 아는 딸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교장선생님의 눈높이 교육으로 학생들이 자연에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어 기뻐요.

모든 학교에서는 학예회라는 걸 할 겁니다. 삼근초등학교는 학생 인원이 적어 본교·분교 학생들이 모두 모여 학예회를 합니다. 그리고 1학년부터 6학년 학생은 다 같이 국악 연주를 합니다. 이렇게 전교의

모든 학년 학생이 힘을 모아 연주하는 모습을 보니 참 대견했고 협동심을 배우는 데 좋은 연습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삼근초등학교에서는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란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만 전입이 가능하게 하는 일방향 학구 조정입니다. 울진읍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은 입학, 전학도 가능하고 통학 지원도 해줍니다. 통학버스, 택시 또는 통학 교통비 지원 등 모든 지원이 무료입니다. 무엇보다 시골에서 봄에는 벚꽃 길을 걷고 여름에는 냇가에서 물놀이를, 가을엔 단풍 산책, 겨울엔 눈싸움하며 자유롭고 활기찬 초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어 좋습니다.

물론 다른 학교들도 좋은 프로그램과 훌륭한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학교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저는 우리 딸이 다니고 있는 삼근초등학교가 오래오래 남아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보냅니다.

다른 학부모님분들께서는 학교가 통폐합해서 다른 학생들과 기금을 같이 쓰면 좋은 일이 아니냐 하십니다. 맞습니다.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통폐합하게 되면 금강송면은 시골이라 행정실도 급식실도 모두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급식할 수 없게 되고 실질적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더 나아가 학교가 없어지면 지역사회도 함께 무너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부모님들 특히 자연을 좋아하는 자녀분들이 있으시다면 울진군 금강송면 삼근초등학교를 살펴주세요. 저희는 언제든 입학과 전학을 환영합니다. 삼근초등학교가 궁금하면 언제든지 교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꼭 학교 일이 아니더라도 금강송면에는 금강송의 푸르름이 있는 불영계곡이 있으니 올여름 물놀이로 놀러 오세요. 금강송 마을주민들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Letter 03

사랑방 이장님과 엄마

추연학 | 광주광역시 북구

저희 엄마는 아빠와 스무 살에 결혼하고 딸 하나에 아들 셋을 낳으셨습니다. 저는 막내아들이고요. 두 분은 정말 금실이 좋으셨다는데 아버지는 어머니 나이 스물아홉 살에 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스물아홉 살에 청상이 되신 저희 엄마는 한복집을 하며 저희 넷을 키우셨습니다.

곱디고운 얼굴에 단아한 매무새를 가진 엄마께 많은 아저씨가 구애를 했었지만 아이가 넷이라는 걸림돌을 넘기는 어려웠나 봅니다. 그렇게 엄마는 연애도 재혼도 하지 못하고 어느덧 예순이 넘으셨죠. 예순이 넘은 나이지만 엄마는 아직도 젊어 보이고 본인이 만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다니는 단아한 분이십니다.

엄마는 저희가 어릴 때부터 육아 일기를 쓰셨는데 저희가 마흔 가까이 되는 지금도 쓰고 계시더라고요. 몰래 훔쳐본 엄마의 일기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부터 아이들 키우는 어려움 등등 가슴 아픈 엄마의 사연이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일기부터 일기의 마지막에 아주 작게 한 문장씩 쓰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오늘은 첫째 주려고 김치를 종류별로 만들었다. 아이들도 나이가 들어가니 입맛이 바뀐다. 전에는 먹지도 않던 파김치를 푹 익혀주라고 하니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내일은 쪽파를 사러 장에 가야겠다…>

그 뒤에 아주 작게 쓰인 글씨. <장에서 이장님 만나면 좋겠다.>

다음 일기에는 <셋째 처가 임신 중인데 음식을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 고민이 된다. 전에 해준 동치미는 잘 먹었다는데 또 동치미를 해줘야 할지. 뭘 먹고 싶냐고 물어도 어머님 음식은 다 맛있다고만 말하니 음식해주기가 더 어렵다…> 그리고 그 뒤에 아주 작게 <이장님 오늘 멋있다.>

이렇게 쓰인 이장님에 대한 문장이 수개월째 반복되고 있었고 저는 당장 동네에서 이장님 호구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장님은 혼자되신 지 10여 년이 좀 넘었고 교직 생활을 오래 하신 점잖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였고 번듯한 직장들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부족함 없이 생활하고 계신다 등등 동네 할머님, 이모님 등 인맥을 총동원해 이장님의 호구조사를 마쳤지요.

"그래, 이분이야!"

이장님을 우리 새아빠로 점찍고 우연한 만남을 가장해 엄마와 이장님을 만나게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만났음에도 두 분 다 왜 그렇게 숫기가 없으신지 도무지 연애에 속도가 안 나는 겁니다. 돌아가신 아빠를 닮아 성격이 급한 제가 엄마 대신 이장님 댁에 쳐들어갔지요.

"이장님! 저희 엄마 어떠세요? 저희 엄마는 이장님 좋아하는데요. 저희 엄마랑 만나보실래요?"

당돌한 제 발언에 이장님은 엄청나게 놀라셨지만 인자하게 웃으며 자초지종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두 분은 삼 개월째 열애 중이고 곧 결혼 예정입니다. 두 분께서 백년해로하시길 간절히 빌어봅니다.

Letter 04

복순 씨의 여행

이선화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순 씨가 구부정한 몸을 햇볕에 내맡긴 채 멍하니 앉아 있다. 머리는 한쪽이 눌린 채 윤기를 잃어 부스스하다. 집안으로 들어서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며 주름살이 깊어진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그 나이대에 보기 드문 훤칠한 키에 농사일 하는 사람 같지 않게 뽀얀 피부를 가진 당당한 모습이었다. 그것이 마음이든 먹을 것이든 남들에게 나눠 주길 좋아했으며 깔끔한 성격에 살림하는 손끝도 야무졌다. 그녀의 손길 속에 논밭의 곡식과 채소는 몸을 키웠다. 고추 농사며 마늘 수확, 콩 타작과 팥 수확 등 농사일은 전부 복순 씨 몫이었다.

그러는 동안 꼿꼿했던 허리는 굽어지고 무릎은 꺾여갔다.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던 것도 살림살이에 적지 않게 보탬이 된 그

녀의 옹골찬 솜씨 덕이 크다. 아마 복순 씨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힘들었을 것이다.

복순 씨는 요즘 들어 자주 혼자만의 여행을 떠난다. 과거의 어느 시간에 머물다 돌아오곤 한다. 오 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는 증세가 더 심해졌다. 치매 환자가 으레 그렇듯 그녀도 옛날 기억은 또렷해서 같은 이야기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수차례 반복한다.

어린 시절 집에서 고구마, 누룽지를 숨겨 와 친구들과 떠들며 놀았던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시절로 돌아간 듯 소녀처럼 해맑은 웃음을 짓는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잠시뿐 대부분은 복순 씨가 시집온 후의 시간으로 돌아간다.

그녀는 열세 살 되던 해 어머니가 세상을 뜨면서 험난한 인생길로 들어선다. 그녀 나이 열아홉에는 아버지가 재혼을 하는 바람에 오빠 집에 얹혀살게 된다. 오빠 집이지만 결혼했으니 올케언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복순 씨가 지쳐갈 즈음 혼인 말이 있었고 그녀는 도망치듯 서둘러 결혼한다.

시어머니 자리가 힘들다는 소문도 있었고 자식이 딸린 재취 자리라 오빠가 만류했지만 복순 씨가 덜컥 결정한 결혼이었다. 의지할 데 없이 힘들었던 상황은 그녀의 자존감을 떨구었고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남편한테 사랑받으며 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맏며느리로 시집온 복순 씨가 감당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았다. 시부모는 물론이고 시동생 둘에 시누이 두 명까지 한솥밥을 먹어야 했기에 끼니를 챙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 식구별로 따로 밥상을 차려내고 나면 그녀는 부뚜막에 쪼그려 앉아 꽁보리밥 몇 술로 끼니를 때워야 할 때가 허다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긴 했으나 여자의 마음을 세심히 살필 줄 몰랐으며 집안일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소문대로 시집살이는 매웠다. 농사일과 집안일로 늘 종종거렸지만 그녀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이가 없었다.

시어머니의 지청구 끝에 따라붙는 "어미도 없이 커 뭘 배우고 자랐겠냐"라는 말은 복순 씨의 가슴에 대못으로 박혔다.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닌 딸을 제 배로 낳은 두 아들보다도 마음을 기울여 키웠고 공부하는 동안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시동생과 시누이들을 결혼시켜 내보냈고 중풍으로 쓰러져 몸져누운 시아버지의 병수발도 그녀 차지였다. 몸서리쳐지게 차가운 냇물에 벌게진 두 손으로 시아버지 속옷 빨래를 했던 그날의 기억은 복순 씨 머릿속에 고스란히 남았다.

시어머니가 아흔두 살의 나이로 돌아가실 때까지 몇 달간 대소변을 받아낸 것도 복순 씨였다. 그렇게 호기롭던 시어머니도 자신의 치부를 며느리 손에 맡기는 게 미안했던지 모질게 대한 옛일을 사과하고 가슴에 묻어 두지 말라며 눈물을 흘렸다.

복순 씨도 함께 울며 수십 년 동안 맺힌 원망과 설움을 조금 덜어내는 듯했으나 그것만으로 어찌 그 세월이 풀어질까. 오늘도 나를 앉혀 두고 그녀는 모질었던 시집살이의 현장에 가 있는지 서러운 눈물을 쏟아낸다.

내가 그녀와 인연을 맺은 시간도 삼십 년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복순 씨가 며느리를 봤을 때 자신은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다고 했고 그 다짐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

치매에 걸리기 전에도 그녀는 가슴속 한을 풀지 못해 그 시절 이야기를 자주 입에 올렸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 말해도 그것이 어디 말처럼 쉽겠는가. 풀지 못한 응어리가 치매로 온 게 아닐까 싶어 마음이 저린다.

근처에 사는 그녀의 아들은 출근하기 전 복순 씨에게 반찬 몇 가지와 간식거리를 건네고 퇴근길에는 그녀의 하루를 정리해 준다.

부지런했던 그녀가 삶의 의욕을 잃으면서 반질반질 윤이 나던 세간살이도 주인을 닮아 빛을 잃었다. 옷차림새도 추레해지고 머리는 언제 빗질을 했나 싶게 엉켰으며 흰머리가 그새 쑥 자라났다. 미용실 가는 것도 귀찮아해서 오늘은 내가 염색약을 사 들고 왔다. 복순 씨 머리에 빗질하며 염색약을 바른다. 며느리가 염색해 줬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해야겠다며 조금 전에 눈물 쏟은 사람 같지 않게 목소리가 밝아진다.

자신의 몫을 챙기는 데 마음을 두지 않던 그녀가 별것도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고 깔끔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변해 버렸다.

내 시어머니인 그녀, 복순 씨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가슴이 먹먹해진다. 고달프지 않은 생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녀가 걸어온 길은 특히 평탄했던 적보다 오르막에 가팔랐던 때가 많았다. 이제는 여유로운 시간으로 채워졌으면 했는데….

치매라는 병이 그녀의 떨쳐내고 싶은 기억을 데려가면 좋으련만 갉아 먹혀가는 시간의 틈새로 고통의 시간이 똬리를 트는 듯하다.

시어머니는 혼자서 어디로 여행을 떠나 헤매고 있는지. 어차피 떠나는 여행이라면 아픈 상처의 길이 아닌 행복했던 추억의 장소에 잠시 다녀오시길 바란다.

Letter 05

아내가 좋아하는 나

왕남웅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아내는 아침잠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침형 인간이라 아침잠이 없습니다. 내가 회사 출근하는 평일에는 어쩔 수 없지만 회사 출근이 없는 공휴일에는 아내가 마음껏 잠을 잘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그래서 공휴일에는 혼자 아침밥을 챙겨 먹고 바로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는 산책 하러 나갑니다. 산책 후 샤워를 한 다음 커피 한잔 마시고 있으면 기지개를 켜며 웃음기 머금은 밝은 얼굴을 한 아내가 "굿~모닝" 하며 함박웃음을 짓고 나옵니다.

봄에서 가을까지는 진하게 탄 커피 한잔을 들고 뒷마당에서 음악을 들으며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겨울에는 추우니 밖에 나가지 않고 거실 창가에 앉아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하는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토요일 10시쯤이 되면 옷을 주섬주섬 차려입고 외출을 합니다. 일

주일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녁 술상을 보기 위해 이천에 있는 대형마트에 가기 위해서죠. 공휴일에는 주로 내가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요리 재료는 내가 선택하며 쇼핑카트에 담습니다. 그렇지만 요리 선택은 내가 하지만 결국 선택의 조건은 아내가 좋아할 것 같은 것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든가 텔레비전에서 맛있어 보였던 요리 위주가 됩니다. 요리는 되도록 한 달간 먹었던 것과 겹치지 않도록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구성합니다.

요리는 대부분 퓨전 요리가 주를 이룹니다. 예를 들면 달걀 스크램블을 약간 변형시킨 요리로 햄과 양파를 달달 볶아서 양파가 약간 노릇노릇 익었을 때 파를 잘게 썰어 집어넣고 달걀물을 부어서 잘 저어줍니다. 달걀이 어느 정도 익어갈 때쯤 아삭아삭한 숙주나물을 넣어서 살짝만 익혀줍니다. 처음 보는 허여멀건 요리에 아내는 잠시 낯설어하지만 아삭아삭 씹히는 숙주의 맛과 노릇노릇 구워진 양파의 향기 그리고 부드러운 달걀이 어우러진 맛을 보고서는 젓가락질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또는 구절판 요리를 한다던가, 겨울에는 특히 달고 향이 좋은 굴 요리를 자주 해줍니다.

안주가 될 만한 요리 재료를 골랐으면 주류 코너로 이동을 합니다. 아내는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술 마시는 분위기를 좋아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내는 맥주를 좋아합니다. 아내의 최애 맥주를 사고 나는 만 원대 초반인 아르헨티나 산 와인을 삽니다. 아내는 기분이 엄청 좋을 때 맥주 3병, 보통은 2병 정도 그리고 나는 와인 1병 또는 2병이 주량입니다.

마트에서 나오면 12시경, 점심은 무얼 먹을까 잠시 고민합니다. 우리 부부는 막국수를 좋아합니다. 막국수 또는 굴밥, 해장국 등을 그날의 기분에 따라 먹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각자 할 일 하고 저녁 5시쯤부터 요리를 시작합니다. 모든 요리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에 끝냅니다. 그리고 식탁을 텔레비전 앞으로 이동시켜서 자리를 잡고 영화를 보며 두 사람만의 파티를 시작합니다. 아내는 이러한 분위기와 시간을 좋아합니다. 아내는 이러한 나를 좋아합니다.

나는 지루성 피부라서 주름이 잘 생기지 않는 장점도 있지만 잘 씻지 않으면 온몸에 기름기가 쫙 끼며 중년 남성 특유의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은 물론이고 운동을 하고 나면 반드시 샤워합니다. 샤워하고 나면 몸을 닦는 데 사용한 수건으로 수납공간의 거울과 샤워실 칸막이용 유리를 물기가 없도록 잘 닦아 놓습니다. 그리고 손 씻는 세면기하고 목욕용 수전의 물기를 모두 닦아내죠. 나는 게으르지 않지만 깨끗하기 위해 노력하는 타입도 아닙니다. 하지만 유리나 수전에 물방울이 있으면 마르면서 자국이 남는데 참 보기가 싫어서 갖게 된 버릇으로 습관적으로 닦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러한 사소한 나의 습관을 좋아합니다. 아내는 이러한 나를 좋아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우직한 곰과보다는 약삭빠른 여우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성이 남다르게 뛰어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가 아내가 슬픈지 화가 나 있는지 행복해하는지 아내의 말하는 상태와 표정에서 잘 읽어내고 있습니다. 화를 잘 안 내는 아내인지라 화를 내는 방법이 좀 서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부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나는 아내가 화가 나 있다면 우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바라다봅니다. 그리고 화난 상황에 따라 묘책을 세우는데 대부분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맥주 한잔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감성을 자극하는 영화를 검색해서 보고 나면 눈꼬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죠.

정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겠지만 나로 인해 화가 났다면 그 어느 때보다 짧은 시간에 분노 게이지를 낮추어 주려고 노력합니다. 언제까지냐고요. 당연히 아내가 나로 인해 생긴 분노가 사그라질 때까지죠.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화나 분노가 생겼을 때 화를 나게 한, 분노를 느끼게 한 대상이 그 화나 분노를 삭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도 분노 게이지가 상당 부분 낮추어진다는 생각입니다.

아내가 슬퍼하는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이럴 때는 화가 나 있는 아내를 대할 때보다 한 걸음 더 빠른 촉을 가동해야 됩니다. 슬픔이 일순간에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슬픔은 과정이 있습니다. 징후 또는 징조가 있죠. 그리고 슬픔의 크기가 너무 커서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슬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것이 있지요. 내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슬픔은 자리 이동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자리 이동 또는 육체의 자리 이동 이러한 사항을 슬픔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면 슬픔이 근본적으로 없어지지는 않지만 최소한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생각의 육체의 면역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슬픔의 근원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자신 혼자가 아닌 동반자, 든든한 백이 같이 있다는 안도감이 슬픔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내는 이런 나를 좋아합니다.

나는 아내와의 모든 기념일을 다 기억하고 기념일에 걸맞은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아내는 이럴 때마다 무진장 행복해합니다. 나는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덩달아 행복해지고 이러한 행복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부부의 기념일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먼 훗날 아내가 나를 보며 "당신을 만나서 정말 즐겁고 행복했어~"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Letter 06

어느 손님에 대한 걱정

애청자

조용한 매장 안의 정적을 깨는 출입문 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어서 오세요."

내 인사가 무색하게 그 손님은 비틀거리며 들어옵니다.

내 눈은 계속 손님을 주시했고 혹시나 좁은 매장 안이라 넘어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소주 2병과 담배를 주문했고 안줏거리는 없었습니다.

계산 중에도 카운터 앞에서 휘청거리며 서 있는 손님을 불안한 마음으로 온 신경을 곤두세웠지만 다행히 계산 끝내고 나가셨습니다.

길을 건너는 모습까지 주시하고 멀어져 가는 뒷모습에 뭔가 모를 삶의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짧지만 혼자만의 상상으로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을까… 잠시 그 손님이 남긴 여운이 머무릅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다시 그 손님이 매장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내 인사는 메아리처럼 매장 안에 흘러나오는 음악 속에 묻혀버립니다.

세상 모든 힘듦과 슬픔을 얼굴에 담고 무표정하게 그러나 담담하게 그 남자 손님은 소주 2병을 카운터에 올려 둡니다.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 덜 비틀거리네. 술에 덜 취한 것 같아….'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이 약간 지난 시간 그 손님이 매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 오늘은 술 취한 모습이 아니네.'

처음으로 맨정신의 모습을 보자 저도 내심 반가웠습니다. 매장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더니 물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번개탄 있어요?"

"네? 번개탄이요? 없… 없는데요."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손님은 무표정하게 매장 밖을 나갔습니다.

저는 번개탄이라는 말에 혼자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그 손님이 걸어가는 쪽으로 계속 시선이 따라갔고 시야에서 사라지자 매장 밖으로 나가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찾았습니다.

사는 곳은 길 건너 맞은편인 것 같은데 혹시 번개탄을 사러 다니는 걸까? 혼자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지 몰라 고민하다가 길 건너 철물점이 생각이 나서 상호를 검색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방금 남자 손님이 번개탄 사러 오셨냐고 물었더니 왔는데 없어서

그냥 갔다고 합니다.

오지랖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며칠 전 소주를 사러 온 모습과 표정 없이 힘든 얼굴과 비틀거리는 술 취한 모습이 떠올라 불안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지구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걱정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니 일단 그 주위를 순찰해 본다고 하십니다.

그 일이 있고 한동안 그 손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흘인가 지나 한참 만에 매장에 오셨습니다. 얼굴에 피가 묻어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넘어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소주 2병을 카운터에 올린 그 남자분은 자신의 얼굴을 가리키며 피가 나냐고 묻습니다. 피가 흐르진 않지만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다시 오셨습니다. 맨정신의 모습으로 아니 어제 마신 술이 약간 덜 깬 그러나 술에 취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강아지 먹이가 있냐고 묻습니다. 저는 카운터 밖으로 나와 안내해 드렸습니다. 처음으로 그 손님은 미소를 띠며 "우리 집에 강아지를 키워요. 진돗개예요. 다음에 데리고 와도 되죠?" 저는 너무 갑자기 말씀하셔서 조금 당황했지만 "아, 네. 강아지를 키우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했더니 세상 해맑게 웃으며 소주 대신 강아지 먹이를 사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오늘 오전입니다.

해맑게 웃으며 강아지를 안고 오셨습니다. 털이 새하얀 진돗개였어요. 너무 순하고 예쁜 강아지였어요. 강아지 간식을 계산하면서 그분께 물었습니다.

"강아지가 너무 귀엽네요. 이름이 뭐예요?"

"흰둥이에요."

그리곤 세상 행복한 얼굴로 흰둥이를 안고 나가셨어요.

저도 모르게 아저씨한테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안심되었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주 창을 열어서 흰둥이가 좋아할 만한 간식이 뭐가 있나 찾아봅니다. 오늘 먹을 건 닭고기니까 소고기 맛도 발주 창에 담아 두었습니다.

단골손님이라기엔 너무 가끔 오시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그 손님이 가고 나면 '삶이 힘든가? 슬픈가?'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오늘 흰둥이를 보니 앞으로의 시간은 아저씨가 외롭지 않고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소주가 아니라 흰둥이 간식과 아저씨가 드실 맛있는 간식을 사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나눌 상대가 사람이어도 좋고 강아지여도 좋고 음악이어도 좋고 조용한 휴식이어도 좋습니다. 삶은 늘 그렇듯 정답은 없습니다.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살아가는지 조금 다를 뿐입니다.

'남이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야, 너무 오지랖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걱정되었고 안심이 되었고 앞으로 행복을 빌어주고 싶었습니다. 소소한 일상 속에 작은 행복이 스며들길 바라며 오늘 하루 내 삶의 한 페이지를 남겨봅니다.

Letter 07

고사리손에서 배우다

강호경 | 경남 김해시 구지로

어제 면허시험장에서 장내 기능시험을 쳤다. 남들 다 있다는 2종 보통면허의 필요성을 마흔 살 넘어서 느끼고 도전한 시험이었고 설마 남들 다 따는 걸 내가 떨어질까 싶었다.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조금은 있었지만 나는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떨어졌다.

평생 시험을 쳐서 '탈락'이라는 걸 해본 경험이 극히 드물었기에 처음엔 심장이 콩닥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괜히 다들 수군거리는 거 같아 부끄러웠다.

그리고 이내 초등학교 2학년 때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엄마는 눈이 점점 멀어져 가는 아빠를 대신해 운전면허를 따야 했다. 하지만 엄마는 첫 필기시험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다음 날 엄마는 대구까지 가서 다시 필기시험을 보고 오셨다.

내 기억엔 저녁 늦은 시간에 환한 얼굴로 돌아와 말씀하시길 "내가 시험에 떨어져 보니까 이제 너희에게 공부하라고 말할 자신이 없더라. 엄마부터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시험에 떨어진 거 같고 너무 부끄러웠어. 그래서 밤새워 공부하고 오늘 아침에 바로 대구까지 가서 다시 시험 보고 왔어."

지금 부끄러운 내 감정도 그때의 젊은 엄마의 마음과 비슷할까? 과연 나는 열심히 한 것이 맞나? 아이들에게 매사 열심히 하라고 할 자격이 있나?

나는 다시 화요일에 기능시험을 예약했다. 강사님께서는 반드시 합격하겠다는 마음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 시동부터 잘 켜자, 출발부터 성공하자, 오르막만 성공하자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공을 목표로 하라고 조언해 주셨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나니 왠지 이번엔 정말로 합격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떨어졌다.

시험에 떨어지고 집으로 와서 아이들 하원을 기다리는데 집에 오자마자 아이들은 "엄마 합격했어?"라고 물었고, 난 "아니, 떨어졌어"라고 답했다.

그러자 침울해하는 엄마를 작은 품에 안고서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등을 토닥여 주며 "괜찮아, 엄마. 다시 치면 되지. 수고했어"라고 말해주는데 순간 그렇게 위안이 되면서 마음이 포근해졌다. 남들 다 있는 2종 보통면허증 기능시험도 통과하지 못한 못난 사람이라는 자괴감이 우리 집 셋째의 다독임 한방에 다 날아갔다.

평소 단어시험이나 쪽지시험을 치고 와서 애들이 틀린 문제를 보여주면 "너는 이 쉬운 걸 왜 틀리니? 실수도 실력이야"라고 핀잔을 줬던 못난 어미의 모습이 떠올라 또 얼마나 반성하게 되던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토닥거림과 괜찮다는 위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배움도 마음도 커져 감을 느낀다. 아이들에게서 배우는 것도 많고 힘든 시절 우릴 키우느라 고생하셨을 부모님 마음도 많이 알아간다.

요즘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개인 생활이나 취미를 즐기는 부모도 많지만 내 부모님 시절엔 정말 먹고살기에 바빠서 그저 일하고 아이들 키우는 데만 일생을 바치며 사셨고 또 그 자식들 출가시킨 후엔 손주들 돌봐주며 본인들 노후를 위해서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분들도 많지 않은가.

부모님 덕분에 꽤 괜찮은 40대를 보내고 있는 거 같아 새삼 감사하다.

남은 2024년은 나 자신을 더욱 돌보며 아이들에게도 늙어가고 있는 내 부모님에게도 더 여유롭게 내 마음속에 있는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야겠다.

기능시험 한 번 떨어졌다고 '실패'라고 말하는 게 너무 거창한 것 같지만 한 번 떨어져 보니 아이들에게 앞만 보라고 닦달했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대구까지 시험을 치러 갔었던 친정엄마의 그때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면서 앞으로는 과연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그랬노라 말할 수 있는 40대를 살아가야겠다.

Letter 08

나는 최고가 아니야

김순봉 | 광주광역시 북구 동운로

나는 항상 '내 생각과 행동은 늘 최고야!'라고 생각하고 내 고집대로 행동했다. 그래서 내 위치에서 일인자가 되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었고 자만이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읽을 대목이 생기면 나를 지목하셨다.

"김순봉, 일어나 7쪽 읽어 봐."

나는 벌떡 일어나 목청을 가다듬고 곧장 읽기 시작한다. 국어 시간 <심청전>. 딸 심청이가 선단에 팔려 가는 길목에서 심 봉사와 울며불며 대화하는 장면이었다.

"청아 청아, 내가 널 팔아 눈을 뜨면 무엇하겠느냐! 다 필요 없다. 청아 청아, 가지 마라."

나는 울부짖듯 사실적으로 읽어 내려갔고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얘들아, 글이란 바로 순봉이처럼 저렇게 생동감 있게 읽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담임선생님의 칭찬과 격려로 나는 더 감정을 가지고 성우처럼 읽었고 '읽는 데에서는 내가 최고야!'라고 생각했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인천에 사는 둘째 형님네 기거하면서 인천 동암역 시장통 상가 건물을 짓는 데서 노가대로 일하게 되었다. 자갈, 모래, 시멘트 등을 질통에 넣어 등에 짊어지고 7층까지 오르내리는 일인데 너무 힘들어 새참 때 막걸리 힘을 빌려 참고 견디며 일했다.

그러다가 전남도 8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있다는 정보를 알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홀어머니께서 홀로 농사를 지으셨는데 윗방에 베이스캠프를 치고 이판사판 머리 싸매고 수험 준비에 들어갔다. 결국 10명 뽑는 시험에 합격하여 공식적인 첫 사회생활을 공무원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비전 없는 수산직 공무원을 곧 그만두고 다시 광주광역시 7급 공무원 시험을 5개월 준비하여 35살에 합격했다. 내 사전엔 청탁이나 백그라운드를 이용하여 취직하는 건 추호도 용납되지 않았다. 그건 나만의 자부심이자 줏대였다. 그 시험은 2명을 선발했는데 합격했으니 하늘을 찌를 듯한 나의 자부심은 꺾일 줄 몰랐다.

구청 보건소 서무, 기획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보건소에서나 과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직원이 되었다. 젊음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근무했고 그야말로 모범공무원이며 탁월한 공무원으로 인정받았다. 더욱 기고만장, 내가 최고로 능력 있는 공무원인 줄 알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근무평점 1위, 경력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6급 승진 시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말았다. 3순위로 올라온 여직원이 인맥과 청탁으로 승진자로 낙점되었다. 나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겼다. 회의감이 들어 단 하루도 더 근무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사표를 내고 사무실을 박차고 나와 버렸다. 그것이 나의 자존심이었고 '내가 최고'라는 자부심이 아닌, 자만이었던 것 같다.

내 생각이 결코 바람직하고 옳지만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 의견도 존중하고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이젠 두 귀를 활짝 열고 들어야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나는 최고가 아니며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더불어 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깨달았다.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 하고자 하는 의지와 욕심 등도 조용히 내려놓을 줄 알아야겠다. 바로 이게 진정한 자존심을 지키는 일 아니겠는가!

북유럽에서 통용되는 '얀테의 법칙'이 떠오른다. 얀테는 덴마크 출신 노르웨이 작가가 발표한 소설에 나오는 마을인데 '잘난 사람'이 대우받지 못하는 곳이다. 이 가상의 마을에서는 보통 사람보다 똑똑하거나 잘생기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데 10개 조의 지침이 있단다.

1.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2. 당신이 남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3.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4.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자만하지 말라.
5.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
6. 당신이 다른 이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7. 당신이 모든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8.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말라.
9.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관심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10.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다시 읽어 보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자기가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Letter 09

'아가잘있나'

박상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부면

저는 정년퇴직한 후 시골로 내려와 전원생활을 하면서 가끔 여행도 하고 텃밭도 일구고 요즘은 소형 농기계도 구입해서 소소한 시골살이에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귀촌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주변 선배분이 커플 댄스를 권하셨는데 저는 현직에 근무할 당시 춤을 이상하게 즐기는 사람들을 하도 봐서 전혀 매력을 못 느꼈어요. 선배의 공갈 협박에 억지로 끌려 나갔을 때도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 연구만 하며 시간을 보냈지요.

제가 그렇게 동작을 못 하고 멍하니 의자에 앉아 있으면 같이 갔던 아내도 다른 사람들 추는 걸 그냥 바라만 보다 와야 했습니다. 또 제가 너무 못 추니까 다른 형님들이 제 아내를 잡아주기도 했는데 그 동작이 그렇게 잘한다는 느낌도 없고 멋져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그런가 싶고 차라리 내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추면 저분들보다는 더 멋있게 출 거 같단 생각도 하게 됐지요.

그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 복지회관에 나가서 열심히 따라 추고 동영상을 찍어서 돌려보기도 수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새 2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작년부터는 강사님이 저에게 지도부장이라고 호칭하고 초창기에 저를 가르쳐줬던 분들을 이제는 제가 지도하는 입장으로 상황이 바뀌었답니다. 커플 댄스는 나이 들어서 부부가 할 수 있는 운동 중 으뜸이라고 제가 홍보를 하는 사람으로까지 변해 있어요.

작년 연말엔 주변 '면민의 날' 여러 곳에 초청을 받아 지르박과 블루스 공연도 하고 왔답니다. 우리 공연팀은 일곱 커플인데 여섯 팀은 부부이고 한 팀은 여자끼리 하는데 그분들이 제일 고참이세요. 제 나이가 68세, 그럼에도 그 일곱 커플 남자 중 막내였답니다.

근데 올해 2월에 면사무소 홍보 프로그램을 보고 한 남자분이 찾아와서 막내인 제가 접수를 도왔는데 약간 나이는 들어 보이는 첫인상과 달리 웬걸 생년월일을 적는데 60년생으로 저보다 무려 3살이나 적었으니 제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2년 만에 막내 자리를 물려주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혹시라도 재미를 못 붙이고 그만둘까 봐 나름 지도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도를 해주었답니다. 형수님들도 혼자인 그 막내를 돌아가면서 잡아주고 여러 가지로 잘 보살펴 주었지요. 게다가 그 막내는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넉살이 얼마나 좋은지 쉬는 시간만 되면 형님 형수님들한테 노래 교실에서 배운 거라며 몸을 흔들며 목청껏 노래도 부르고 온갖 재롱을 부려서 모든 사람이 다 그를 좋아했고 댄스 연습이 끝나면 맛집을 찾아다니며 잘 지내는 성격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팀에 합류해 몇 개월 동안 재밌는 시간을 보

냈어요.

근데 얼마 전 그 막내가 "형님 형수님들~ 제가 다음 주는 울릉도 여행을 예약해서 못 나옵니다" 이렇게 애기하고 연습에 불참한 며칠간 저희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 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막내가 불참하는 동안 71세 남성분이 커플 댄스 등록하겠다고 찾아오셨어요. 부인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동안 혼자라도 기초를 미리 배워서 부인 퇴원 후에 같이 오겠노라고요. 근데 그분도 첫날부터 얼마나 입담이 좋으시던지 강사님의 시간을 뺏을 정도였지요. 그래서 제가 "와따! 우리 막내 홍길동이 없으니까 오늘은 새로운 분이 오셔서 그 자리를 메워주시네~" 했더니, 그분이 "어? 제가 아는 형님 중에도 홍길동이란 분이 있는데 설마 혹시 그분인가?" 그러면서 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는데 우리 막내 홍길동이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듯 그러더라고요.

"맞다고요? 어? 이상하네. 근데 어떻게 그 형님 이름을 그렇게 동생 부르듯 하슈?"

"에? 홍길동이는 60년생인데 뭐가 이상해요?"

"에? 내가 그 형님을 알고 지낸 게 벌써 20년인데 무슨 소리예요? 그 형님 나이가 74세예요."

그 말에 우리 회원들 모두 멘붕 상태가 되고 말았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무려 9살을 내려서 속인 게 되고 우리 팀에서 두 번째로 서열이 높은 사람인데 우리가 다 동생 취급을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막내가 돌아온 날, 아무래도 오해를 풀어야겠다 싶어서 연습 끝나고 팀원들끼리 밥을 좀 먹자 했습니다. 문제의 막내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예전과 다르게 어색하게 식사하더라고요. 식사가

끝난 후 말이 잘 떨어졌지만 일단 주민등록증을 좀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막내는 뭔가 결심한 듯 차를 한 입 마시더니 "하~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74세가 맞아요. 제가 본의 아니게 회원분들을 속이는 결과를 가져온 건 커플 댄스 접수하러 갔던 날 처음 얼굴을 보며 반겨줄 때 제가 봐도 제가 여기서 두세 번째로 나이가 많겠다 싶더라고요. 그때 문득 내가 젊은 나이라고 해야 다들 부담 없이 날 끼워주고 가르쳐줄 거란 생각이 들었고 작년 건강검진 때 신체 나이가 9살 젊게 나와서 문화센터에서 노래 배우러 다닐 때도 그 나이로 말했더니 다들 별다른 의심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젊은 사람이 왔다고 좋아해 주기에 커플 댄스도 그렇게 접수한 겁니다. 한데 하필 그 친구가 그것도 제가 안 나오는 날 찾아와서 이런 사단을 만들 줄 몰랐네요."

얘기를 듣는 내내 저희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보다 여섯 살이나 많은 형님을 그동안 "어이 길동이~ 어이 막내~" 이렇게 부르고 엉뚱한 스텝을 밟을 때면 정신 차리라며 엉덩이를 톡톡 쳤구나 싶고 그때마다 이 형님이 까르륵까르륵 웃으며 재롱을 부리셨던 게 떠올라 그저 멍하기만 했어요. 그렇다고 그 형님이 우리에게 무슨 손해를 끼친 건 아니지만 오히려 약 4개월간 막내로서 우리에게 너무 큰 즐거움을 주셨기에 저희는 그 후로 그분과 말을 섞는 게 좀 어렵게 됐답니다.

나이를 거짓으로 한두 살 올려서 동갑이네 갑장이네 하는 건 봤지만 무려 9살이나 내려서 사람들을 멘붕에 빠지게 만드는 걸 어째야 하나요? 웃자면 한참 재밌게 웃어넘길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끝까지 정답을 찾을 수가 없네요.

귀농 귀촌한 사람들끼리 굳이 주민등록증 보면서 통성명하지 않으

니까 이렇게 얼렁뚱땅 나이 좀 속일 수도 있지 할 수 있는데 시골 지역사회는 정말 한 다리 건너면 다 친척이고 이웃이고 다 아는 경우가 많아서 절대 남의 말도 함부로 가볍게 해서도 안 되고 특히 거짓말은 영원히 갈 수 없겠구나 싶습니다.

끝으로 제가 퇴직 전에 5일간 합숙하면서 '공직자 귀농 귀촌 교육'을 받았을 때 수업 시간마다 "아가잘있나"를 구호로 외쳤던 생각이 납니다. 귀촌하고 3년간 '아가잘있나' 이것만 잘 실행하면 시골 생활 정착이 훨씬 빨라진다는 뜻에서 외쳤던 말인데 귀촌 꿈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알려드립니다.

아 : 아는 척하지 말고
가 : 가진 척하지 말고
잘 : 잘난 척하지 말고
있 : 있는 척하지 말고
나 : 나서지 말라

귀촌했을 때 마을 회의 같은 게 있으면 가능한 꼭 참석하고 혹시 회의 방향이 내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쉽게 아는 척 나서거나 "그건 아니고요"라고 반박하기보다 지금껏 그들이 해왔던 방식이나 정서를 존중하면서 기다려주세요. 그럼, 모든 게 알아서 제자리로 잘 굴러오고 돌아가더라고요.

'아가잘있나' 이걸 잘 기억하고 살다 보면 새로운 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던 지역 사람들도 어느새 내 옆에 다가와 서로 도움을 주려 하고 때로는 조언을 구하려 하는 등 보람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Letter 10

꼬마 농부 삼 형제

류외희 |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일곱 살, 다섯 살, 세 살 개구쟁이 삼 형제를 데리고 주말농장을 해보고 싶다는 딸에게 제발 사서 고생할 일 좀 만들지 말라고 강한 반대 의사를 전했지만 딸은 결국 텃밭을 분양받고 말았다.

지난 3월 어느 날 7평 남짓한 밭에 퇴비를 뿌리고 고랑을 일구어 처음으로 씨감자를 심었다. 삼 형제 꼬마 농부들은 모래놀이 삽 등을 가지고 힘을 보탰다. 그런데 딸과 사위가 배운 대로 열심히 씨감자를 심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맙소사! 막내가 그 뒤를 따르며 심어놓은 감자들을 죄다 캤다고 의기양양하게 들고 왔다. 며칠 후엔 부추랑 파 모종 심어놓은 걸 둘째가 잡초를 뽑았다며 들고 오기도 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는 방울토마토, 고추, 가지, 호박, 딸기, 상추, 콩, 양배추 등을 심었다. 생전 처음 해보는 농사에 꼬마 농부들은 좌충우돌 시행착오를 겪으며 두어 달 손을 보탰다. 그리고 현재 텃밭의 작황

상태는 예상 밖으로 매우 만족할 수준이다.

상추는 쑥쑥 잘 자라서 이웃과 지인들에게 한 번씩 나눠줬고 감자도 잘 자라서 얼마 뒤면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준이다. 애당초 손자들의 체험학습장, 흙 놀이터가 목표였으니 수확에 대한 기대는 그다지 높지 않았건만 흙과 땀의 정직성에 감동할 따름이다. 방울토마토는 가지가 무겁도록 조롱조롱 열리고 귀엽고 작은 딸기도 주렁주렁하다.

주말농장인데 주말이 아닌 주중에도 가줘야 한다는 함정이 있긴 하지만 집에서 가까우니 갈 만 하다. 손자들이 유치원 가고 없는 시간에 나 혼자 가서 잡초도 뽑고 지지대도 세우고 진짜 농사일을 해둬야 주말에 꼬마 농부들의 즐거운 놀이터가 되는 것이다.

한 번은 튼실하게 잘 크던 양배추에서 갑자기 잎을 갉아 먹는 무적의 애벌레가 나타났다. 결국 양배추는 모두 뽑아버려야 했지만 그때 잎을 갉아 먹고 있던 애벌레를 양배추 채로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채집통에 넣어 관찰을 시작했다.

호기심 많은 손자들은 열흘 남짓 애벌레가 번데기로 변하고 번데기에서 배추흰나비로 변신하는 것을 직접 관찰하는 멋진 기회를 가졌다. 너무 경이로운 일이었다. 매일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변신! 파워! 출동!'을 외치던 손자들에게 애벌레의 변신은 그야말로 너무나 획기적인 신비로운 명장면이었다.

"우와~ 우와~"

아이들은 감탄을 연발했다.

차례대로 두 마리의 나비가 태어났고 아직 채집통에는 서너 개의 번데기가 나비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해서 손자는 유치원 하원 차에서 내리면 매일 들르던 놀이터도 가지 않고 집으로 달려온다. 어제 태어난 나비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태어날 나비 이름을 생각하며 즐거워한다.

엊그제 아침엔 손자들을 등원시킨 후 딸이랑 텃밭에 갔다. 상추를 따고 고추랑 방울토마토, 오이 등에 지지대를 세워주었다. 밭에 물을 주기 위해 물뿌리개를 들고 큰 고무 물통으로 갔더니 물통 속에 손톱보다 조금 큰 청개구리 세 마리가 헤엄을 치고 있었다. 그중 제일 작은 개구리 한 마리를 통에 담아서 왔다.

손자들 하원 시간에 개구리를 데리고 마중을 나가니 너무 좋아했다. 둘째 손자가 욕조 안에서 '폴딱'이라 이름 지어준 개구리랑 재밌게 놀았다. 개구리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만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개구리를 관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엔 다시 폴딱이네 집인 풀숲으로 데려다주기로 했다. 집에서 계속 키울 거라고 고집하던 손자들은 개구리 먹이가 없어서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설득이 되어 저녁을 먹은 후 주말농장으로 갔다. 그리고 폴딱이를 데려왔던 근처 풀숲에서 아쉬운 이별을 했다.

"잘 가 폴딱아~ 다음에 또 만나!"

잠시 후 개구리들의 합창 소리가 들려왔다. 주변에 엄청 많은 개구리가 있는 것 같았다.

"할머니, 폴딱이 가족들이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나 봐요. 아마 폴딱이가 나랑 우리 집에서 재밌게 놀았던 이야기를 가족들한테 했을 것 같아요."

손자는 너무나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폴딱이 가족의 합창을 듣고 있었다.

유난히 곤충을 좋아하는 둘째는 할머니랑 곤충박물관도 가고 집 근처 공원에서 잠자리랑 매미도 잡았었다. 그때마다 잠시 한두 시간 정도만 데리고 놀다가 꼭 돌려보내도록 했다. 곤충 친구들도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야 행복하다고 말해주었더니 끄덕이며 공감했다.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도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보며 좋아하는 손자들에게 밟으면 절대 안 된다고 가르친다. 잡은 곤충은 아주 조심스럽게 만지고 재밌게 같이 놀다가 얼른 집으로 보내 주어야 된다고 가르친다. 개미 한 마리의 생명도 소중함을 알고 나비와 잠자리가 살고 있는 숲을 좋아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아이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다.

이틀 동안 두 마리의 나비가 태어났다. 손자들이 너무 좋아했다. 설탕물과 배춧잎을 넣어주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엄마, 이제 그만 나비들을 날려 보내주면 좋겠어요" 손자들이 먼저 말했다. 놀이터 정원에서 나비를 보내주며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는 손주들에게 나는 말해주었다.

"그래, 잘했다~. 아마 나비들이 너희에게 엄청나게 고마워할 걸~ 태어나게 보살펴주고~ 숲으로 날아가게 해주어서 고맙다고~."

지금 집에는 주말농장에서 데려온 열두 마리의 올챙이가 자라고 있다. 먹이도 주고 들여다보며 언제 뒷다리가 나오는지 관찰하느라 꼬마 농부들의 눈동자가 반짝인다.

나비와 개구리랑 대화하며 우리는 친구라고 말하는 우리 예쁜 삼형제! 매일 우당탕 시끌벅적 울고 웃느라 정신없지만 너희들이 할머니의 비타민이고 달콤한 보약이란다. 지금처럼 잘 자라서 반듯하고 마음 따뜻한 멋진 청년으로 자라기를 할머니는 기도한다. 사랑해~.

Letter 11

제게도 가족이 있었네요

김은순 | 경기도 포천시 정자동1길

어느 주말에 아들이 거실에서 낮은 볼륨으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 하면 "으흠~"이라는 인사가 돌아옵니다.

아들에게선 아침 인사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 아들에게 간 큰 엄마는 한 마디 툭 던집니다.

"엄마는 소원이 하나 있어…."

"……"

역시 아무 대꾸도 없습니다.

"엄마는 어디든 혼자 갈 수 있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제주도는 부담스럽네. 특히 한라산은 엄두가 안 나."

아들이 고개를 돌려 서 있는 저를 올려다봅니다. 여전히 함구한 채로.

"엄마, 한라산 가고 싶어. 소원이야. 친구들은 관절이 안 좋거나 이

미 갔다 왔대. 우리 한라산 갈래?"

일언반구 반응이 없습니다. 큰아들이 얼마 전에 한 얘기가 생각나서 '그러면 그렇지'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엄마 친구는 남편과 두 아들과 베트남에 자유여행 간대. 패키지가 아니라서 더 재미있을 것 같아. 엄마도 자유여행 가고 싶다. 자유롭게!" 했더니 아들이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가족끼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쓸쓸했지요. 그때를 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던져는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혼자 한라산 갈 엄두는 나지 않고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대답도 반응도 없는 아들을 보다가 마음을 다스리며 산자락을 서너 시간 걷고 하천가 돌다리 위에 앉아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며 마음을 털어냅니다. 서른두 살 우리 큰아들과 나는 도대체 어느 만큼의 거리에 있나.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생계를 위해 애썼습니다. 처음엔 학습지 방문교사, 나중엔 집에서 공부방을 했습니다. 입소문이 나서 스물여섯 명까지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다.

안방에선 작은 아이가 숙제하고 텔레비전 보고 간식 먹고, 작은 방 하나에선 큰 아이가 긴 시간 컴퓨터 게임을 하고, 다른 작은 방에는 공부방 아이들이 숙제하거나 쉬고, 저는 거실에서 아이들과 수업하고. 두 시에 시작한 수업은 8시에 끝났고 저는 기진맥진하여 근처 식당에서 주문한 식사로 저녁을 대충 때우고 남은 반찬은 용기에 담아 아침에 한 번 더 활용하고 그러는 동안 수시로 저혈당에 빠지니 몸도 마음도 쇠하더군요.

생계를 이으려고 다른 아이들과는 눈 마주 보며 이야기를 나누면

서도 정작 내 아이와는 그럴 힘이 남아있지 않아 쓰러지듯 잠자리에 드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는 자연스레 말이 없어지고 공존하는 시간도 공간도 줄어들더니 아들들은 커서 학교를 향해 떠나고 군대 다녀오고 이내 독립하여 집을 나서더군요. 그렇게 우린 물방울처럼 뚝뚝 떨어져 지냈지요.

그러다가 2년 전부터 큰아들이 집 근처 직장에 다니면서 저와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따로국밥 사이의 모자인 채로 말입니다. 그러다가 뜬금없는 한라산 타령을 했으니 아들은 멍했던 거지요.

긴 시간 산책하고 돌아와 쉬고 있는데 문자 도착 신호음이 울립니다. 아들이 자기 방에서 보낸 거였어요. 거기엔 A4 용지에 명료하게 짠 3박 4일 제주 여행 일정이 있었습니다. 6월 6일 3시 김포공항 출발, 6월 9일 12시에 도착하는 제주 여행 일정이. 엄마가 안 먹어 보고, 안 가본 것, 안 해 본 것 위주로 짜 놓았더군요.

도착한 다음 날 한라산에 올랐습니다. 일기가 좋지 않아서 마지막 쉼터인 진달래밭 쉼터 이후 바람이 강해지고 기온이 내려가고 운무가 몰려와 시야는 흐려지고 다들 힘들다는데 저는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출발 하루 전에 왼쪽 발목을 삐끗해 짧은 거리만 동행했고 큰아들만 한라산에 같이 올랐지요. 제 페이스에 맞추느라 아들은 뒤에서 묵묵히 걸으며 저를 살피고 저는 산행이 처음인 아들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오릅니다. 그때마다 아들 손에 휴대폰이 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 아들은 제 뒷모습을 계속 찍고 있었더군요.

하산할 때는 아들더러 앞장서라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트인 풍경 구경하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 아들의 뒷모습을 봅니다. 아까의

저처럼 엄마를 돌아보며 페이스 조절하는 아들 마음을 봅니다.

3박 4일 동안 저는 두 아들의 팔을 잡고 따라다녔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아내고 있다고 혼자서도 잘 살아내야 한다고 억지로 억지로 버틴 날들이 많았습니다. 행여나 타인에게 의지하여 약해지면 아이들을 혼자 건사할 수 없을까 봐 혼자 악다물고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후 보니 아이들도 저도 어디에 있는 건가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행을 하며 서로 말은 많이 안 했지만 '우린 늘 곁에 있었구나. 나도 아들들도 가족으로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바비큐란 것도 해 먹어 보고 처음으로 9시간을 나란히 걸어 보고 비바람 속에서 백록담을 등에 지고 차가워진 땡초 김밥도 서로 먹여주고 장성한 아들들과 막걸리도 마셔보고 아들이 먹고 싶은 것으로 골라 주면 색다른 맛에 즐거워했고 아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따라 가면 색다른 볼거리가 있어 행복했지요.

예전에 여행할 때 저는 혼자 걷고 혼자 먹고 잠은 거의 찜질방에서 자고 순댓국, 해장국, 막국수, 김밥, 빵, 떡 등으로 해결했는데 그래서 여행을 하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했지만 가족 여행이나 부부 여행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 한편이 서늘해져서 시선을 돌리곤 했지요.

이번 여행 내내 참 많이 웃었습니다. 참 많이 행복했고요. 제주를 떠나는 공항에서 큰아들이 묻데요.

"여행 어떠셨슈?"

"너~무 좋아."

"뭐가 젤로 좋았슈?"

"다 좋았어. 특히 아들과 한라산 등반을 하다니 꿈만 같아. 정말 정말 좋았어. 진짜 좋았어. 여행 기획하고 실행하느라 큰아들 수고했고

왼발 다치는 바람에 오른발로 운전해 준 작은아들도 고맙고….”

그러자 그 과묵한 큰아들이 그럽니다.

“다음에 또 가유~.”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 합격했나?’

큰아들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작은 아들에게 말했어요.

“돌아보면 형이 엄마 뒷모습을 찍고 있더라. 놀랐어. 엄마는 형이 의무적으로 따라온 줄 알았거든. 그래서 미안했거든.”

“그러게요. 형은 줄곧 엄마를 찍고 나는 그런 형과 엄마를 찍고. 형이 말이 없어서 그렇지 형은 형이고 아들은 아들이더라고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 아들들은 각자의 자리를 향해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입니다. 그런데 여행 다녀오기 전과 다른 꽉 찬 느낌이 좋습니다.

부작용도 있네요. 여행이 너무 좋았나 봅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멍해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총각무 한 단을 사 왔습니다. 맛있게 익으면 다음 주말이 생일인 작은 아들이 올 겁니다.

과묵한 큰아들이 집을 나서며 긴 두 팔을 벌립니다.

“어머나~ 엄마 오늘도 계 탔네~.”

나는 아들을 힘껏 안으며 소리 내어 큰소리로 웃습니다. 그랬네요. 제게도 가족이 있었네요. 따뜻하고 든든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Letter 12

어쩌다 불청객

김기현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저는 경기도에서 광역버스 3000번을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더위에 땀을 많이 흘리니 여름의 불청객 모기가 숨어들어와 친하게 지내자고 신호를 보내지만 수용할 수 없어 눈에 띄면 바로 잡아 흔적을 없애는 중 저도 모기 같은 불청객이 됐던 쓰라린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저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 주변에 임시 차고지가 있고 버스 11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컨테이너를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이동식 화장실이라 악취를 피해 멀리 떨어진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곤 했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정체가 심한 고속도로를 달려 판교에 들어서면 회차 지점을 지나 화장실에 들를 수 있는 주유소가 한 군데 있는데

그날은 한적한 도로에 관광버스가 여러 대 주차되어 있어서 제가 버스를 주차할 곳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근처 상가 화장실에 가야만 했고 그날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 또다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런 날은 1시간 이상 참으며 하남까지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회차 지점 가까이에 있는 화장실 개방 주유소 사장님이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곳 사장님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주유 없이 오로지 화장실만을 위해 들리는 택시 기사, 버스 기사 등 영업에 전혀 도움 안 되는 나그네들을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셨습니다.

그날도 제 뱃속에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폭탄 터지는 소리와 기관총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에 공중 부양을 하다시피 달려서 주유소에 도착했고 무사히 거사를 치르고 나니 항상 신세만 지는 마음이 편치 않아서 피로회복제 한 박스를 사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또다시 그곳 주유소 화장실을 얻어 쓰고 나오는데 갑자기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더니 뭔가를 손에 쥐여 주시더군요.

"거 출출 할 때 드슈~."

에너지바였습니다. 한사코 거절했지만 보행 신호등은 이미 점멸을 시작해서 저에게 빨리 건너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큰 소리로 인사하고 돌아서는 길.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던 그 사장님을 6년 가까이 그 노선 시작할 때부터 뵈었는데 저 같은 불청객 손님을 한결같이 웃는 얼굴로 맞아주는 모습이 새삼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청객을 불청객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짧은 순간 표정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그분의 경영 철학을

보여주는 듯했지요.

저도 버스 운전하기 전 주유소 관리자로 14년 일을 해봐서 주유소 운영자의 심정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장님의 모습은 쉽지 않은 일 같았어요.

'내가 저분의 나이만큼 먹었을 때 저분처럼 웃는 얼굴 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니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거울 보고 노력한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내면이 품고 있는 생각과 감정, 소신이 버무려져 나오는 그 무언가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노인이 되지만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어떤 강의에서 들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내 얼굴에 책임을 지고 내가 품어온 생각과 감정을 잘 다듬어 표현할 수 있는 인생이 잘 익어가는 인생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 사장님의 성함도 모르고 아무런 정보도 없지만 인생을 오래 살면 표정 하나로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걸 그분을 통해 배운 듯합니다.

남들이 불청객으로 여기는 사람을 손님으로 맞이할 수 있는 마음가짐, 불청객을 감동시켜 손님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사장님의 무기는 드넓은 대륙을 정복했던 정복자들보다 제겐 더 위대한 듯합니다.

오래전 어떤 회사 광고 카피 중에 '고객이 OK 할 때까지'라는 게 있었는데 아마도 그 주유소의 보이지 않는 광고 카피는 '고객이 감동해서 KO 될 때까지'였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Letter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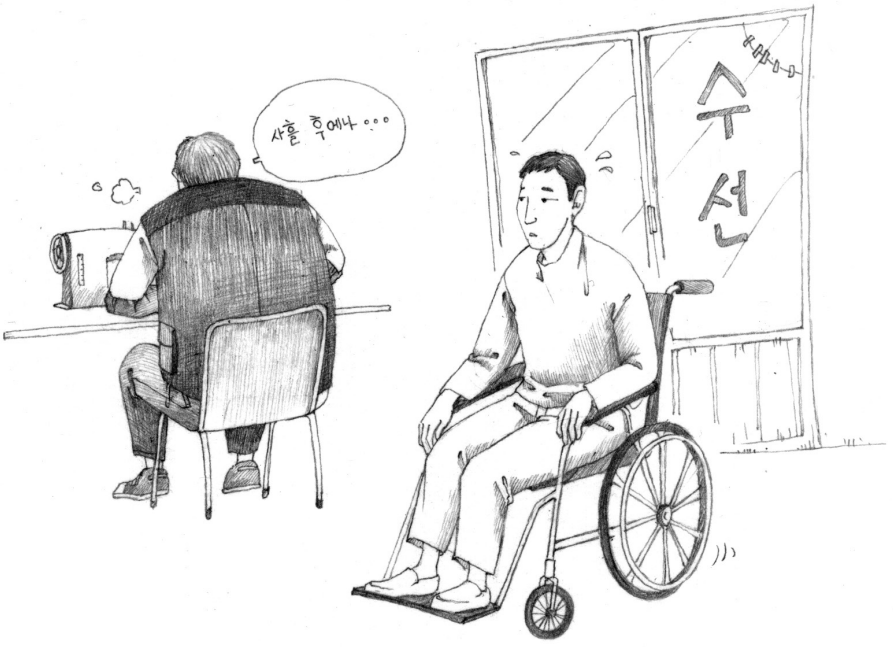
수선가게 노인

김경식 | 경북 김천시 감문면

나는 전신마비 중증장애인이다. 26년 전에 교통사고로 경추를 다쳐서 손목에 힘이 없어 식사와 컴퓨터를 할 때마다 보조기를 착용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보조기를 사용하다 보니 낡고 헤져서 벨크로의 접착력이 떨어졌다. 수리 비용을 알아보니 터무니없이 비싸서 새로 사는 가격과 비슷했다. 형편이 어려운 나는 가격이 부담되어 고쳐서 써보려고 몇 군데 알아보았으나 모두 수선이 불가능했다.

마지막으로 한 수선가게를 전동휠체어를 타고 찾아갔는데 막다른 골목길 끝에 눈에 띄지도 않는 작고 허름한 가게였다. 팔십 대로 보이는 백발의 노인이 나무 의자에 앉아 돋보기를 쓰고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테이블 위로는 손때 묻은 오래된 재봉틀이 보였다. 나는 보조기를 노인에게 보여주며 물었다.

"수선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노인은 장애인보조기가 신기한 듯 이리저리 자세히 살펴보았다. 여태껏 단 한 번도 수선해 본 적이 없는지 내게 사용법을 묻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수선을 거절하면 할 수 없이 새 보조기를 구입하려고 생각하던 그때였다.

"수선이 가능하겠어요. 일주일 후에 찾으러 오세요."

노인의 대답이 시원하여 반가웠다. 마음을 바꾸기 전에 얼른 수선비용을 선불로 주고 가게를 나왔다.

그리고 일주일 후 보조기를 찾으러 갔더니 노인은 나를 보자마자 퉁명스레 말했다.

"아직 수선이 덜 되었으니까 사흘 후에나 찾아가세요."

노인은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도 전혀 미안한 표정을 짓지 않았다. 손님인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건성으로 대답하는 태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처음 가게를 찾을 때는 손님이 없었는데 그날은 무척 바빠 보였기에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 짐작하며 가게를 나왔다.

사흘이 지나서 다시 가게를 찾아갔다. 그런데 이번에도 노인은 무심히 나를 쳐다보며 구체적인 설명 없이 아직 수선이 덜 됐다고 했다. 마음만 먹으면 기껏 반나절이면 수선이 끝날 것 같은데 불편한 몸으로 가게를 또 찾아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속에서 부아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노인이 들으라는 식으로 작게 중얼거렸다.

"수선이 덜 끝났으면 미리 연락을 주시지…."

노인은 내 말을 듣지 못한 것 같았다.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노인의 느린 속도를 맞춰주고 기다리는 손님이 몇이나 될까? 장사는 신용인데 손님과의 약속을 어긴 무책임한 태도에 기분이 언짢아서 결국 나는 노인에게 한마디 하였다.

"일주일이면 수선이 다 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까지는 꼭 수선을 다 해놓을게요…."

이번에는 노인이 태도를 바꾸며 나에게 사과하였다. 그동안 노인에게 섭섭했던 감정들이 고개를 숙였다.

보조기를 쓸 수 없어 식사할 때마다 어머니가 밥과 반찬을 떠먹여 주었고 컴퓨터를 쓸 수가 없어 불편했다. 하루빨리 보조기를 고쳐서 내 손으로 식사하고 싶어 잔뜩 기대하고 찾아갔는데 또 실망해서 가

게를 나왔다.

며칠 후 노인과 약속한 날짜에 다시 가게를 찾았다. 드디어 노인이 보조기를 수선해 놓았는데 벨크로 색깔이 내가 싫어하는 분홍색이었고 안쪽에 작은 천 조각을 덧대어 박음질한 게 마치 누더기를 기워 놓은 듯 볼품이 없었다.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았지만 노인에게 뭐라고 하지 못한 채 인사하고 가게를 나왔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노인의 수선 실력이 형편없다고 비난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보조기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새로 산 것처럼 박음질이 꼼꼼하게 아주 잘 되었구나. 앞으로 걱정 없이 오랫동안 쓰겠다."

삶의 경험이 나보다 많은 어머니는 노인의 수선 실력을 한눈에 알아보고 칭찬하셨다.

그 말에 나는 의아해하며 다시 보조기를 살펴보았는데 실내가 어두웠던 가게에서 봤을 때와는 다르게 노인의 숨은 실력이 눈에 들어왔다. 다른 손님의 옷을 수선하면 몇 배의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돈도 되지 않는 보조기를 붙들고 수많은 시간 고민하며 수선했을 노인을 생각하자 고마웠다.

마음속으로 게으른 노인이라 비난하고 오랜 세월 익힌 기술을 하찮게 생각했던 것이 부끄러웠다. 비록 노인의 말투가 투박하고 약속은 제때 지키지 않았으나 완벽한 기술로 고객에게 만족을 주려는 그의 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윤오영 수필가의 <방망이 깎던 노인>처럼 수선가게 노인도 진정한 장인이 아닐지 생각하며 세월이 흘러도 노인이 건강하게 그 자리에서 계속 수선하기를 빌었다. 다시 가게 앞을 지난다면 음료수라도 건네며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겠다.

이달의 손편지

행복이 별건가요?

김옥삼 | 경기도 광명시

오후 4시경 무렵 예쁜 며느리 한테서 전화 한통이 걸려왔어요.
어머니 저녁 하셨어요 해서 아니 지금 라면 끓여 먹으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지난번에 시켜준 메일 국수, 메밀 부침개, 수육을 집으로 배달해 준다기에 너무 좋아서 연락 고맙다고 몇번을 말하고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고 하고서 전화를 끊고 기다렸습니다.
얼마 뒤에 벨이 울려서 현관문을 열어 봤더니 배달 음식이 놓여 있어서 들고 들어와 정신없이 허겁 지겁 세 가지를 다 먹어 치웠습니다.

남편이 하늘 나라로 떠난지도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예쁜 며느리도 얻고 귀여운 손자도 벌써 4살이 되었네요。

부부로 산지 28년 짧은 기간이었지만 60년 산 부부들 보다 행복 했었다고 말하고 싶어요。

하늘나라 가서도 마느라 걱정 돼서 착하고 싹싹한 예쁜 며느리를 얻게 해준 남편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행복이 별건가요。

오늘처럼 며느리가 시켜준 음식 세 가지를 먹고 배 불러서 행복한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어린 나이에 28세에 시집와서 저녁마다 손자 목욕 시킬때도 영상 통화로 살뜰히 챙기는 며느리 딸도 없고 아들 한명 밖에 없는데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 생각하며 살면 더 뭘 바라겠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꼭 큰것에 행복이 아니더라구요。

저보다 잘 살고 잘난 사람 비교만 안하면 뭐

더 바랄게 있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래요。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고 신나서 떠드냐고 하는데 저는 살면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면 끝이 없어요。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며 살기로 했어요。
현재 처한 상황에 만족하며 한번씩 아들 며느리 손자와 함께 차타고 맛집가서 맛난 음식 실컷 먹으면 이 세상 부러울게 없더라구요。
광명시는 너무 너무 살기좋은 곳이 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노인복지관에서 만 60세 이상부터 점심 한끼를 밥、국、반찬 4가지 어찌나 맛있게 해 주는지 아침일찍 가서 2,000원 주고 표를 끊고 점심떠 가서 맛있게 먹고 오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녁 여섯시 반이면 TV에서 쓰르야구 응원하고 삼성 강민호 포수 나오면 가슴이 뛰고 잘생긴 선수 보면 시간 가는줄 모르게 하루가 다

가는거 있죠。
하루가 어찌라 빠쁜지 새벽에 경제신문, 일반
신문 두부가 배달으면 신문 읽는 시간도 3시간은
걸리거든요。 또 도서관에 가서 책 빌려와서 열심히
책 읽어야죠 물론 양희은, 김일중님 친근한 목소리
들으며 전국에서 보내온 고운 사연 들으면 하루의
시작이 불행 끝 행복 시작 아니겠습니까?
여성시대 들으면 희노애락이 그속에 다 있잖습니까?
인생 학교가 따로 없지요!
매주 신문에 월요일이면 로또 번호가 실려요。
지난번에는 2만원 어치를 구매했는데 하나도 안돼고
꽝이더라구요。 그래도 실망할거 없어요。
1등 돼면 그 많은돈 어디다 쓸까 행복한 웃음이
나와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줄이면서 두분 언제나 건강하시고
여성시대 관계자 모든 분들께서도 건강하십시요。

여성시대 사진방

[8595] 열일 스타트~ 이어폰으로 여성시대 듣고 있어요.

[7044] 열심히 알로에 작업하고 있어요. 너무 더워요.

[9745] 이번 달도 연속으로 여성시대 책자 득템 감사합니다.

[0273] 충남 서천에서 버섯 농사를 짓는 47세 남성입니다. 침수로 인해 하우스가 다 잠겨 삼 일째 잠도 못 자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복구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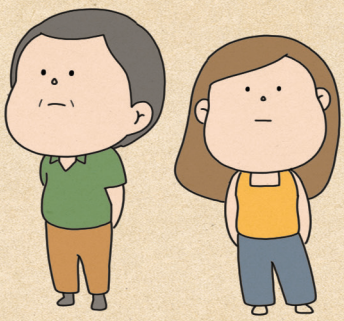
[4666] 하우스 농사짓는데 하우스가 다 잠겼답니다. 차도 트랙터도요. 그래도 사람이 안 다친 게 어디냐며 신랑이 '우리보다 더한 데도 있겠지' 그러는 겁니다. 수해 피해 보신 분들 다들 힘내세요.

오늘의 추억

글/그림 2B

경기 수원시
여성시대 가족 정수연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평소에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도 않고
애정표현도 잘 하지 못하는 무뚝뚝한 딸이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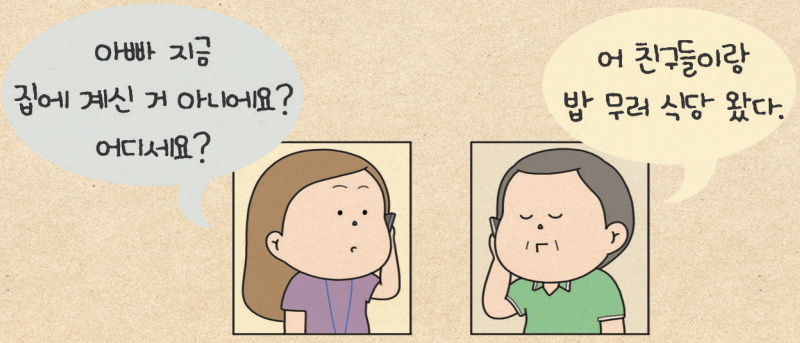
지난 주말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나서
오랜만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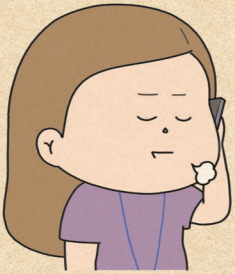
평소라면

하셨을 아버지가

하고 말씀하시기에
바로 단백질 음료를 아버지 주소로 보내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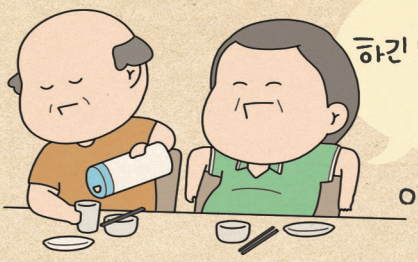
평소 소 닭 보듯 하는 무뚝뚝한 부녀지간이기에
이게 전화까지 할 용건인가 싶어 의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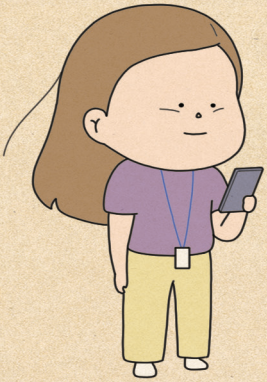


저는 아빠가 친구분들께
자랑하고 싶으신 거나 짐작하고
시시콜콜한 말을 늘어놓으며
아버지 장단을 맞춰드렸지요.

그렇게 슬슬 통화를 마무리하고
아버지가 먼저 끊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제가 좋은 줄 아셨는지
한껏 들뜬 말투로 친구분들께 자랑을 하고 계셨어요.



무뚝뚝하시지만 별거 아닌 일에도
이렇게 기뻐하시는 아버지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사랑합니다!

아시아 최고의 발포정 기술을 보유하다

IBK기업은행 대천지점 거래고객

에프엔바이오(주) 김동호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물에 넣으면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며 서서히 녹아드는 발포 비타민은 소비자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눈도 즐겁지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발포 비타민은 에프엔바이오(주)가 발포정 기술을 개발하기 전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했다. 이제 국내 유일의 아시아 최고의 발포정 기술을 보유한 에프엔바이오가 세계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을 꿈꾼다.

에프엔바이오는 물에 녹여 먹는 발포비타민을 생산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다. 2001년 클로렐라, 비타민, 스피루리나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유통을 시작으로 현재는 주로 발포정으로 된 건강기능식품 및 음료를 생산하고 있다. 아시아 최고의 발포정 제조 기술을 보유한 에프엔바이오는 국내 유일의 발포정 생산 업체이다. 에프엔바이오가 발포정 기술을 개발하기 전까지 시장에는 수입 제품이 대부분이었다. 김동호 대표가 독일에서 발포 비타민을 보고 3년간 기술 개발에 매진해 국내 기술로 제품을 생산했다. 국내 제조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맨땅에 헤딩하다시피 하여 개발에 성공했다. 지금도 시장에 발포정으로 된 건강기능식품은 수입 제품 아니면 에프엔바이오 제품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운 기술이다.

에프엔바이오의 발포비타민이 막 출시될 당시 수입산 발포비타민을 들

여와 유통하던 기업에서 방송에 PPL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에프엔바이오의 제품도 알려지게 되었다. 그 이듬해 여름에는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개발하여 TV홈쇼핑을 통해 히트를 쳤고 에프엔바이오의 성장은 계속됐다.

건강기능식품이 유행을 많이 타는 탓에 굴곡도 있었다. 처음 발포비타민을 출시했을 당시 수입 제품의 방송 PPL 덕에 덩달아 제품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인기가 많아지자 그에 대한 부작용을 제시하는 건강 정보가 떠돌아다니면서 매출이 하락했다. 구연산과 탄산수소나트륨이 물과 만나면 CO^2 가스가 발생하면서 기포가 생기는 것이 발포비타민의 원리인데, 발포정에 함유된 탄산수소나트륨 때문에 나트륨 섭취가 많아질 수 있다는 내용이 방송을 탄 것이다. 사실 발포정 한 정에 함유된 나트륨은 250mg 정도로 라면 한 봉지에 들어있는 나트륨 함량에 비하면 매우 미미하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크게 부풀려진 단점에 주목했고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발포정 시장은 수입 제품이 많아 경쟁하기가 어려운데 시장이 축소되다 보니 회사는 더

욱 어려워졌다. 2015년부터 약 4년간 무척 힘든 시절을 보냈다.

그러던 와중 2020년 초 코로나19가 터졌고 에프엔바이오에게는 기회가 됐다. 비타민C가 코로나에 좋다는 정보가 퍼지면서 외국에서 오퍼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과 싱가포르에서 주문량이 급격히 늘면서 회사 사정이 조금 나아지게 되었고 에프엔바이오가 개발한 발포 다이어트 제품이 SNS에서 명성을 얻으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늘었다. 지금도 다이어트 제품이 에프엔바이오 매출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현재 발포정으로는 건강기능식품만 만들 수 있고 캔디류, 종합 조미료 등을 제외한 일반 식품은 만들 수 없다. 소비자들이 약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호 대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발포정으로 일반식품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진정을 넣었고 승인을 받았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넘어 발포정을 일반식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시중에 나와 있는 액상 음료를 발포정으로 만들기 위해 개발 중인데요, 지금까지 시장에 없던 제품으로 영역을 개척해 또 하

나의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싶어요. 언제 어디서나 맛있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음료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싶습니다."

IBK기업은행 대천지점 김민정 지점장은 "에프엔바이오는 국내 발포정 시장에서 경쟁 업체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며 "IBK기업은행과 함께 케파를 늘리면서 성장해 온 에프엔바이오가 국내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IBK기업은행 대천지점 김민정 지점장(왼쪽)과 에프엔바이오(주) 김동호 대표

에프엔바이오(주) 김동호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보유하라.
2. SNS 마케팅을 활용하라.
3. 소비층을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제품을 개발하라.

에프엔바이오(주)

대 표 김동호
전 화 041-681-5455
주 소 충남 서산시 음암면 두치로 545
홈페이지 https://fnbio.modoo.at/

최고의 의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다

IBK기업은행 원주지점 거래고객

성지병원 문진수 병원장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성지병원은 환자를 섬기는 마음과 취약 계층을 돌보는 봉사 정신으로 지역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원주의 대표 병원이다. 우수한 시설과 의료진을 바탕으로 최선의 치료를 하는 것은 물론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며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있다.

성지병원은 2001년 개원 이래 도민을 비롯해 주변 지역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며 강원도 거점 병원으로 성장하였다.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척추수술과 인공관절 무릎 수술에 로봇수술기 3대를 도입해 로봇수술센터를 개소하여 관절, 척추 수술의 선진화를 열었고, 암 치료의 전문화를 위해 암요양전담병동을 개소하여 암 환자분들의 적극적인 치료를 돕고 있다. 관절센터, 척추·뇌센터, 내과센터, 외과센터, 치과센터, 검진센터 등 다양한 진료과목이 운영되고 있고 2013년에는 '제천 성지병원'도 개원했다. 강원도의 대표 의료 시설로 성장한 성지병원은 우수한 의료진과 최첨단 장비 및 기술을 통해 최선의 진료로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성지병원은 최초의 기록이 많다. 2003년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한국서비스 품질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았고 2018년 최신형 인공관절 로봇수술기를 강원도 최초로 도입함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최신형 척추 수술로봇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였다.

고난도 시술인 양방향 척추내시경 등 최소 침습 분야도 확대하여 관절·척추 비수술 센터를 개설했고 임플란트·교정 센터를 오픈한 것도 강원도 최초다.

아울러 강원도 병원급 최초로 우수건강검진 기관 및 우수 내시경 인증을 획득하였고 환경경영병원평가에서도 도내에서 유일하게 전국 10대 병원에 선정되어 강원도 최초이자 유일의 친환경 병원으로 인증받았다.

이외에도 대통령 표창 2회(국민건강증진, 사회공헌) 수상의 영예를 얻었으며 국무총리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3회 수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질병관리본부장 표창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쌓아 올리고 있다.

또한 원주시민 서로 돕기 천사운동과 지역 예술작가를 위한 성지갤러리를 병원 내에서 직접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병원으로의 역할을 활발히 하여 2023년에는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병원을 설립한 안재홍 이사장은 지역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설립하였고 그런 철학을 이어가기 위해 지역의 취약계층을 돕는 봉사활동 및 해외 봉사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나눔과 사랑의 실천을 성지병원의 당

연한 책무라 생각하고 무료 의료봉사, 무료 의료 수술, 외국인 및 소외계층 초청 무료 진료 등을 실시하고 의료봉사를 넘어 아프리카 우물 파기, 해외 지진 재난 봉사 등을 통해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지병원은 직원들의 행복이 곧 환자에 대한 친절과 봉사 정신으로 이어진다는 마음으로 직원 복지에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환자들을 위한 최첨단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도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다. 개원 당시 99개뿐이었던 병상이 현재 원주·제천 성지병원 349개로 대폭 늘었고 40여 명이었던 임직원은 450여 명으로 늘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역에서 꼭 필요한 병원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환자들에게 성지병원에 가면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싶습니다. 또한 사회에 봉사하는 병원, 직원들에게 신뢰받

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문진수 병원장의 다짐이다.

IBK기업은행 원주지점 고대철 지점장은 "지점 직원들도 아프면 성지병원을 찾으며 서로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IBK기업은행의 협약에 의해 출시한 의료사업자 전용 대출 상품을 통해 성지병원과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IBK기업은행 원주지점과 성지병원 모두 지역에서 입지가 오래된 만큼 금융과 의료가 융합하여 서로 윈윈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며 성지병원의 성장을 응원했다.

IBK기업은행 원주지점 고대철 지점장(왼쪽)과 성지병원 문진수 병원장

성지병원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우수한 의료진과 최첨단 장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최선의 치료를 하라.
2. 취약계층을 돌보고 봉사 정신을 실천하라.
3.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라.

성지병원

병 원 장 문진수
전　　화 033-760-3114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일로 22
홈페이지 https://www.sjmedi.co.kr/

코너 속 편지

사랑 사랑 사랑

81 무조건 무조건이야!
85 검도의 대원칙
89 섭이 장군
93 그 여름날의 프러포즈
97 우리의 취미는 사랑
101 워크숍이 쏘아 올린 작은 공

마음이 따뜻해지는 밥상

104 사라진 택배
108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용기

일러스트 | **조신애**

사랑 사랑 사랑

무조건 무조건이야!

애청자

고등학교에 막 입학할 무렵 저는 학교생활을 무척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서 일부러 멀리 있는 학교에 진학했거든요. 우리 동네의 대표 수다쟁이였던 저는 개학 첫날부터 활달한 성격을 마음껏 뽐내며 새로 만난 친구들에게 말을 걸고 다녔습니다.

"야, 너는 어디 학교에서 왔어? 난 당당중학교에서 왔는데, 당당중학교 어딘지 알아?"

그때였습니다.

"미안한데 여기 공부하는 사람도 있거든? 방해되니까 떠들 거면 나가서 떠들어."

낯설고 차가운 목소리에 목덜미가 서늘해진 저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고 바로 뒷자리에는 얼음 나라에서 온 것 같이 하얀 피부를 가진

여자애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헉, 미안해! 앞으로 조용히 할게."

저는 바로 얼굴이 빨개졌어요. 사실 민망하기도 했지만 그 친구가 너무 예뻤거든요. 부끄럽고 민망한 마음에 그 뒤부터는 저는 교실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교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제 뒷자리에 앉은 그 친구와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쉬는 시간마다 혼자 수학 문제를 푸는 얼음 공주에게 말을 거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학교 전체가 동아리 면접을 보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엉엉 울면서 교실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는 것도 어쩜 그렇게 예쁜지 흰 뺨을 타고 눈물이 뚝뚝 흐르는 모습이 무슨 드라마 속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차가운 표정만 짓던 그 친구가 우니까 반 아이들도 너무 놀라서 말없이 쳐다보고만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울음이 점점 더 거세지더니 결국 밖으로 뛰쳐나갔고 저는 이때다 싶어 얼른 쫓아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왜 울어?"

"나 이 동아리 꼭 하고 싶었는데 떨어진 것 같아. 너무 슬퍼~."

"아니야!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왜 벌써 울어. 붙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대답을 못하겠어서 노래라도 부르겠다고 하고 트로트를 부르고 나왔단 말이야. 너무 부끄러워~."

얼음 공주가 시키지도 않은 노래를 했다니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너무 귀여웠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물어보니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박상철의 '무조건'이었더라고요. 그 아이의 엉뚱한 반전 매력에 저는 퐁당

빠지고 말았죠.

우여곡절 끝에 저는 얼음 공주에게 처음으로 말을 건 사람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그 아이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매일 수학 문제를 풀던 그 아이 H를 닮고 싶었던 저는 팔자에도 없는 문제집을 들고 가서 쉬는 시간마다 애써 공부했습니다. 그 노력을 H도 알아주더라고요.

"우와~ 나도 이 문제집 푸는데 역시 너 뭘 좀 아는구나."

"정말? 손에 잡히는 대로 사 왔는데 우리 통했나보다~."

사실 제가 공부를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H에게 멋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에 계속 공부했더니 성적이 점점 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교 첫 중간고사에서 우리는 나란히 반에서 일이등을 했답니다. 당연히 H가 일등, 제가 이등이었죠.

저희 우정은 고등학교 삼 년 내내 계속됐습니다. 반이 달라져도 누구 한 명이 종례가 늦게 끝나면 꼭 복도에서 상대를 기다려줬고요. 수험생 시절에는 같이 야자를 신청해 매일 저녁 하굣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애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우리 학교에는 연애 금지 규정이 있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 규정이 뭐라고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건지, H에게 제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만나보자고 얘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참 야속하더라고요.

"어허~ 쓰읍~ 너희, H랑 너! 요새 너무 붙어 다닌다. 사귀는 거 아니지? 공부해 공부!"

선생님들은 저희만 보면 '수험생이 무슨 연애냐, 둘이 지내는 게 그렇게 좋으면 시험 다 끝나고 얘기해라,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마음이 휘청휘청 확신이 서지 않아 H에게 고백할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때마침 H도 학업 스트레스가 심했

는지 전처럼 마냥 즐거운 얘기만 나눌 수는 없었죠.

"나 모의고사 성적도 잘 안 나오고 너무 힘들어. 너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

그런 H를 보며 '지금은 때가 아니다. 대학생이 되면 꼭 사귀자고 해야지. 그럼, H가 내 손을 잡아주겠지~' 생각했어요. 저는 이를 꽉 깨물고 힘든 수험생 생활을 버텼습니다.

드디어 스무 살이 되었고 H와 저는 각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는 동네가 멀어지고 바로 몰아치는 대학 행사에 어울리는 친구들도 달라지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이렇게 쓰고 보니 좀 허무하기도 하네요. 멀어지게 되면 너무 그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대학교에는 새로운 친구들이 많았고 또 그곳에 적응하느라 몸과 마음이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하던 연락이 점차 뜸해지는 것도 모른 채 그리울 틈 없이 바쁘게 지냈었죠.

스물한 살이 된 해, SNS를 하다가 H의 생일 알람을 발견해 오랜만에 연락했더니 그 친구는 이미 남자친구가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도 새로운 짝을 만나 연애하게 되면서 저희 이야기는 한때의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된 요즘은 그냥 가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네요. 어쩌면 첫사랑이라 하기에는 그때의 제가 우정과 사랑을 헷갈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H는 너무 멋있는 친구였고 저는 진심으로 그 친구를 동경했어요.

H야~ 네가 아니었으면 나 분명 대학도 못 가고 지난 시절을 많이 후회했을 것 같아. 너 덕분에 최선을 다해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 어디를 가든 얼떨결에 노래 부를 일은 없길 바라고~ 울지 말고~ 씩씩하게 잘 지내!

사랑 사랑 사랑

검도의 대원칙

정동민 | 경남 창원시

대학생 시절 저는 친구의 권유로 검도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검도부 훈련부장인 그녀를 알게 됐어요. 그녀는 왜소한 체격을 가졌지만 자기 키만한 죽도를 곧잘 휘둘렀습니다. 또 훈련부장으로서 신입 부원들의 기강을 잡으며 멋진 검도인의 자세를 보여줬지요.

"너, 검도의 대원칙 중 하나가 뭔지 알아? 바로 후퇴하지 않는 거야. 검을 들고 겁먹으면 어떡해? 정신 안 차려?"

그녀의 동그랗고 큰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 안심이 되었습니다. 검도 대련을 할 때면 평소 온화해 보이는 부원들도 갑자기 눈빛이 돌변해서 저를 잡아먹을 듯 달려드는 게 무섭고 싫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만큼은 눈빛이 늘 한결같아서 대련할 때도 적의나 살기가 아닌 정정당당한 승부에 대한 즐거움만을 보이는 게 좋았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검도를 잘 해보고 싶다는 핑계로 30분 일찍 도장에 나와 애꿎은 타격대를 팼죠. 훈련 시간에는 조금이라도 눈에 더 띄기 위해 기합을 힘차게 넣었습니다.

"이야아압! 이야아아아압!"

또 그녀와 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어렵다느니, 기술 시범을 보여줄 수 있냐느니 하며 검도에 진심인 척했지만 사실 다 검은 속내였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땀내 나는 도장을 넘어 밖으로 확장되기를 원했어요. 그런 마음이 들켰던 걸까요. 저는 그즈음부터 훈련 시간마다 선배들에게 꾸지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너 칼 들고 다른 생각하지? 왜 이렇게 몸짓이 둔해? 칼이 망설이는 게 다 느껴지잖아."

그녀 앞에서 한 소리를 들으니 더 위축되고 칼이 바로 서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녀와의 관계가 많이 진전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어떡하나 걱정이 앞섰어요.

그날은 검도인의 밤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선배 기수와 후배 기수가 한자리에 모여 올해의 대회 입상 실적을 발표하고 선후배끼리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98학번이고 17기였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은 제 아내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나이에 검도부에서 만났었죠."

기수가 높은 순서대로 자신의 학과 학번을 밝히고 자기소개를 하는데 저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연인을 소개하는 선배의 모습에 조금 놀랐었습니다. 저는 특히 쑥스러움이 많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어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옆에 앉아 있는 그녀가 절절한 로맨스 영화를 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와~ 저분들 되게 행복해 보인다. 검도부에서 만났으면 여기서 만나서 쭉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건데! 낭만적이지 않아?"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던데 저분들은 물로 끝나진 않겠네."

"너는 진짜 실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또 듣고 보면 뼈가 있단 말이지? 웃겨~."

그리고 이제 제가 자기소개를 할 차례가 되었지요. 저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더듬는 모습을 상상하며 엉거주춤 일어나 말했습니다.

"22기 신입 부원입니다! 평생 검도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자기소개였습니다. 귀가 새빨개져 자리에 앉으니 "평생 검도? 배포가 크네. 어떻게 하나 보자!"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검도인의 밤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저희는 2, 3차를 가고 나서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나하게 취한 와중에 집에 가는 방향이 같았던 터라 서로 티격태격하며 밤길을 걸었죠. 잘 걷고 있는데 그녀가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며 우뚝 섰습니다.

"나 좋아하는 사람 있다!"

저는 바보같이 그게 누구냐고 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눈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거든요. 그녀가 좋아한다는 그 행운아가 제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한다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매번 내 머리통을 으깨놓는 검도부 선배일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그녀와 친한 여러 친구 중의 한 명일까? 그게 누구든지 어쨌든 제가 아니니 그 이름을 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검도의 대원칙 중 하나는 후퇴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저는 뒷걸음질 치며 아니 그녀에게서 등을 보이며 꽁지 빠지게 내뺐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검도인도 그녀의 남자친구도 되지 못했어요. 저는 이후로 검도부를 쉬겠다며 매년 휴부 신청을 했고 결국에는 유령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녀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검도인의 밤 행사에서 자랑스럽게 연인을 소개하던 이름 모를 선배를 보며 박수쳐주던 때처럼 이번에는 기꺼이 그녀의 들러리가 되어줄 생각입니다.

사랑 사랑 사랑

섭이 장군

애청자

나에게는 잊히지 않는 첫사랑이 있다.

30년 전 경북의 작은 동네.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나는 해가 질 때까지 골목을 누비는 꼬마 골목대장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학교가 끝나자마자 동네 언니 오빠들과 한데 모여 비석 치기와 숨바꼭질, 공기놀이 중에서 무얼 먼저 시작할까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동네 오빠가 처음 보는 남학생을 데리고 왔다.

"얘들아, 인사해. 이 친구는 이번에 전학 온 진섭이야. 우리 반 앤데 같이 어울려서 놀자."

"그러지, 뭐. 우리 숨바꼭질할 건데 술래는 누가 할래?"

"내가 할게! 진섭아, 너도 얼른 가서 숨어. 노래 부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렸던 나는 술래가 노래를 부르니 가슴이

두근두근 금방 잡힐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졌다. 어디에 숨어야 하나 주위를 둘러보며 뛰어가는데 갑자기 그 새로 왔다는 진섭 오빠가 저 멀리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내게 손짓하는 게 아닌가.

"일로 와! 여기 숨어!"

우리는 구석진 곳에 숨어 행여나 술래에게 들킬까 숨소리도 내지 않고 서로만 바라봤다. 술래는 끝끝내 우리를 찾지 못했는지 "못 찾겠다 꾀꼬리~ 꾀꼼 짚고 나와라~" 노래를 부른다.

나는 웃으며 승리했다는 기쁨에 젖어 뛰쳐나가는데 진섭 오빠가 나를 보며 씩 웃었다.

"우리 살았다! 나 여기 처음인데 잘 숨지? 근데 너 이름이 뭐야?"

"어… 저는 ○○이에요!"

아~ 그 미소가 어찌나 멋져 보이던지. 그날 이후로 나는 학교가 끝나면 늘 동네 언니 오빠들이 모이는 골목으로 달려가 혹시 섭이 오빠가 왔나 안 왔나 내심 그를 기다리곤 했다. 섭이 오빠가 부모님 일을 도와야 한다거나 숙제해야 한다며 골목 놀이에 나오지 않으면 무척 서운하기까지 했다.

"섭이는 오늘 바빠서 못 논대. 아버지 일을 도와야 한데."

"정말? 치이~ 그러면 나도 오늘은 좀만 있다가 들어갈래."

어떤 날에는 두 명씩 짝을 이뤄서 '엄마발 아기발'이라는 놀이를 했는데 섭이 오빠와 내가 짝이 되어서 정말 기뻤다. 오빠가 나를 업고 한 발로 뛰었던 그날을 잊을 수 없다. 나를 업은 오빠의 등이 왜 이렇게 넓고 듬직했는지, 편하게 업히라던 오빠의 말이 자상해서 더 좋았던 것 같다.

섭이 오빠는 동네에서 거의 유일한 여자애이자 가장 막내이기도 한 나를 살펴주는 다정한 오빠였다.

하루는 또래 남자애가 "야 땅콩~ 꼬맹이~ 너 키는 언제 크냐?" 하며 끈질기게 나를 놀리는데 약이 단단히 올라 눈물이 터져버렸다. 그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섭이 오빠!

"친구를 그렇게 놀리면 안 되지. ○○이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너, 한 번만 더 ○○이 괴롭히기만 해! 가만 안 둔다?"

오빠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니 그 치사한 자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섭이 오빠는 나만의 백마 탄 왕자였다. 씩씩하고 당차니까 괜찮을 거라면서 나를 이리저리 굴리며 짓궂게 대하던 동네 오빠들과는 달랐다.

일 년쯤 지나자 섭이 오빠는 정말 실질적인 동네의 '골목대장'이 되었다. 항상 어떤 놀이를 어떻게 할지 아이들에게 먼저 제안하면서 친구들을 졸졸 끌고 다녔다.

어느새 동네에서는 '섭이 장군'이라는 별명도 생겼다. 가수 변진섭과 이름이 같아서 언니 오빠들이 변진섭의 노래를 개사해 부르며 '섭이 장군'을 놀리기도 했지만 자기 일에는 아량이 넓어 항상 허허실실 웃고 지나가 주었다. 나는 그런 오빠가 더욱 좋아졌고 오빠도 어떤 놀이를 하든 나를 특별히 예뻐하며 꼭 자기 팀에 나를 끼워 넣어 주었다.

2년이 지났을까. 섭이 오빠가 초등학교를 졸업했던 그해. 동네 슈퍼 평상에 앉아 군것질을 하고 있는데 한 언니가 부리나케 달려와 내 앞에 앉았다.

"너 소식 들었어? 섭이, 다른 동네로 이사 간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전학을 간다고? 왜 나한테 미리 말해주지 않았지? 이 동네에 이사

온 지도 3년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오빠가 왜 이사왔던 건지, 자주 도우러 간다던 아버님의 일은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했다. 오빠의 잘못은 아니지만 나는 우리를 두고 이사를 간다는 사실에 괜한 배신감과 충격을 느꼈나 보다. 무엇보다 오빠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그 소식을 부정하며 귀중한 며칠의 시간을 아깝게 흘려보냈다.

섭이 오빠가 이사 가는 날 인사를 하는 다른 언니 오빠들의 틈에 섞여 나는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오빠와 안녕을 고해야 했다. 그때 어디로 가는 거냐고 주소라도 물었더라면 휴대폰이라도 있었더라면, 지금도 후회가 된다. 이렇게 홀연히 내 첫사랑은 사라져 버렸다.

어디선가 '장군' 소리만 들어도 '섭이 장군'이 떠오른다. 애석하게도 세월이 무서워 섭이 오빠의 성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성을 빼고 별명으로만 불러서 더 그런 것 같다. 다만 나를 업었을 때 보였던 까무잡잡한 목덜미와 든든한 등판이 생각난다.

지금의 남편은 내가 가끔 골목대장 시절 이야기를 꺼내면 그 멋진 섭이 오빠는 대체 뭐 하고 지내냐며 농담 반 질투 반이 섞인 질문을 한다.

나도 궁금하다. 추억 속에 간직한 채 살아온 나의 첫사랑. 그때 왜 그렇게 서둘러서 떠나버린 건지, 지금은 잘살고 있는지 소식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사랑 사랑 사랑

그 여름날의 프러포즈

신정자 | 경기도 수원시

"안녕하십니까?"

느닷없는 큰 고함 소리에 고개를 숙이고 일하던 나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런 나의 행동에 상대도 놀랐는지 멀뚱히 나를 쳐다보고만 있다.

"어떻게 오셨어요?"

"네~ 오늘부터 생산부에서 일하게 된 신입사원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역사적인 우리의 첫 만남이었다. 그는 생산 라인의 기계를 책임지는 수리기사였다. 나는 당시 생산 라인에서 반장을 맡고 있어 그가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잘 보여야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를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온 수리기사라 위의 두 선배에게 텃세

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야간 근무 때면 두 선배가 숙직실에서 노닥거리며 나오지 않고 있으니 그가 허둥지둥 일을 도맡아 해야 했는데 생산 라인의 직원들도 나름대로 답답했는지 만만한 그를 붙잡고 화를 냈다.

밤새 쉴 시간도 없이 서툰 기계 수리 실력으로 여기저기서 욕받이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을 테다. 몰아서 고생해서 그런가 6개월이 지나자 그는 신입 기사의 티를 벗고 제법 불량을 잘 잡아내는 멋진 기사가 되어 있었다.

그뿐인가. 우리 공장은 생산 라인과 수리 라인이 나뉘어져 있어 생산 라인의 일이 아무리 바빠도 수리 기사가 나서서 일을 도와준 적이 없었는데 그는 항상 자기 일을 다 끝내면 우리에게 다가와 보탤 것이 없냐고 물었다.

"오늘 뽑아야 하는 생산량이 많죠? 제가 뭐 도울 게 없을까요? 저는 저기 있을 테니 일 생기면 불러주세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 나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어서 얼른 가족을 꾸려 내 편을 빨리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컸는데 점점 그를 볼수록 저 남자라면 내 반쪽으로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회식 날 나는 용기 내어 말했다.

"서 기사님~ 그동안 저희 생산팀에 신경 써주어 고맙습니다. 서 기사님 덕분에 우리 팀이 생산량 일등을 하고 상까지 받았네요."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저 덕분이겠어요. 신 반장님이야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한 잔 드릴까요?"

우린 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얼큰하게 술에 취했다. 바닥이 위로 훅훅 올라오고 이 정도면 얼큰하게 취했겠다 이제 집에 가려는데 그 사람이 여자 혼자 보낼 수 없다며 나를 따라 나왔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저 앞까지만 같이 걸어요."

"그래요 그럼! 그런데 반장님은 만나는 사람 없으세요?"

"아직 없어요~. 근데 결혼이 고프네요. 좋은 사람 있으면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생 짝지 하고 살고 싶어요."

"그러시구나. 저는 아직은 누군가를 책임지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 일단 편하게 친구 하면 어때요?"

겨우 친구가 되었는데 그는 며칠 지나 야간 조에서 주간 조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려주었다. 매일 야간 조에서 일하는 나와는 반대 조가 된 것이다.

매일 보던 사람을 교대할 때만 잠깐 스치듯 보는 데 괜스레 마음이 아파왔다.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될 줄이야. 마음에 들었으니 언젠가 이렇게 되리라 예상하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마음이 무거워질 줄은 몰랐다. 도저히 못 참겠다. 공책 귀퉁이를 찢어 쪽지를 썼다.

'주말에 시간 좀 내주세요.'

그리고 그날 교대하면서 그의 손에 쪽지를 쥐여주고선 빠르게 사라졌다.

8월 뙤약볕이 내리쬐던 날 우리는 수원의 원천유원지에서 만났다. 오리배도 타고 시원한 모터보드도 타고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도 타면서 데이트를 하는데 농구를 잘하던 그 사람은 골대에 공 4개를 모두 넣어 나에게 대형 인형도 안겨 주었다. 데이트를 마치고 집까지 바래다준 그 사람. 오늘의 데이트도 친구로서의 일로 남기면 안 될 것 같았다.

"혹시 저녁에 일 없으면 우리 집에서 이른 저녁 먹고 가실래요?"

"네? 정말 그래도 돼요?"

자취방에 처음으로 초대한 남자 손님이었다. 쭈뼛거리며 들어온 그

를 편히 앉히고 호박과 두부를 꺼내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였다. 언니들이 보내준 반찬통을 꺼내 정성스레 상을 차린다. 먹는 모습이 얼마나 복스럽던지 그가 된장찌개 두 그릇을 뚝딱 비우는 데 마음이 뿌듯했다.

"어때요? 입에 좀 맞아요?"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는 처음이에요. 매일 먹고 싶을 정도예요."

"매일이요? 그럼 결혼해야 하는데 책임지는 게 무서워서 결혼은 싫다면서요?"

"원래는 그랬는데요. 신 반장님이라면 또 다른 것 같아요. 저희 한 번 진지하게 만나볼까요?"

그가 나를 꼭 안아 주는데 그 여름밤의 프러포즈는 잊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달콤한 사내 연애를 시작했고 2년을 진득하게 만나다 결혼식을 올려 지금 35년째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다. 연년생 아들과 딸도 저마다 좋은 짝을 만나 결혼했고 우리 부부만 남아 된장찌개를 나누어 먹으며 살아간다. 매일 며느리와 딸이 보내주는 손주들의 동영상을 보면서 하루하루 행복을 느끼면서 말이다.

지금도 남편은 나의 요리 솜씨에 엄지척을 해주는데 그때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인생이 어찌 되었을지 모르겠다고 용기 내어 먼저 다가와 줘서 고맙다고 한다.

여보~ 벌써 손주들이 넷이네. 귀엽고 사랑스러운 손주들 보면서 남은 생도 알콩달콩 살아갑시다. 사랑합니다!

사랑 사랑 사랑

우리의 취미는 사랑

박선주 | 대구광역시 달서구

남편은 조금 투박하지만 정말 다정한 사람입니다. 제 말을 하나도 흘려듣지 않아요.

"아~ 조금 출출해서 그런가? 만두가 땡기네."

"그래, 만두 맛있지."

심드렁하게 대답해 놓고서는 외출하고 돌아올 때면 제가 말한 그 메뉴를 손에 들고 옵니다. 따끈한 상태 그대로 품 안에 넣어서 갖다 주죠. 말보다도 행동으로 사랑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도 이런 다정한 모습에 반했습니다. 2003년 당시 저는 스물셋의 나이에 남편을 쫓아다니며 나랑 만나달라고 졸랐고 결국 연애에 성공! 그렇게 삼 년을 만나 스물여섯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모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홀로 살고 계신 시할아버님 댁에 신세를 져야 했지만 다정한 남편과 그와 성정이 비슷하신 할아버님

덕분에 두 딸아이를 무탈하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남편을 닮았는지 크게 속 썩이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주고 있어요.

저는 남편에게 고마운 일이 많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서막을 남편이 열어주었거든요. 저는 열아홉 살부터 미술을 하고 싶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스무 살 때부터 공장에 다녔는데 미술 공부가 하고 싶어 무작정 학원을 신청했다가 도저히 학원비와 재룟값을 감당할 수 없어 금방 포기해야 했죠.

다시 그림을 시작한 건 두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무렵이었습니다. 저만의 시간이 조금씩 생기면서 평소 좋아하던 꽃을 연습장에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걸 '식물 세밀화' 일명 '보태니컬 아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좀 더 시간을 들여 그려볼까 하고 마음이 혹했지만 청춘 시절에 스치듯이 봤던 무시무시한 재룟값이 걱정이었습니다.

"자기야, 이걸 보태니컬 아트라고 부르나봐. 근데 한번 시작하면 계속 재료를 사야 할 텐데 그냥 시작하지 말까?"

"무슨 소리야! 당신 요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림 그리겠다고 종이부터 꺼내잖아. 무조건 해봐. 그러다 보면 길이 열릴 거야."

남편의 격려에 힘입어 저는 서른여섯 늦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2년은 기본기부터 다지자는 마음으로 스케치만 연습했어요. 눈에 보이는 온갖 식물들을 자세히 따라 그렸죠. 그러다 제 서른여덟 번째 생일날 남편이 저에게 종이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뭐야~ 생일 선물이야? 이런 걸 언제 샀대."

"내가 알아봤는데 색연필에도 미술 전문가용이 따로 있다네. 나무 케이스로 된 게 예뻐서 하나 샀어. 이제 당신도 당신만의 그림을 그려봐."

정말 감동이었어요. 나중에 찾아보니 이 색연필이 케이스마다 가격

차이가 나더라고요. 틴케이스는 20만 원, 나무 케이스로 된 건 거의 40만 원 돈이었습니다. 이 돈을 내고 아마추어 습작생인 제게 프로용 재료를 선물해 주다니 사랑이 담긴 응원에 힘이 불끈 났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에 몰입했습니다. 책을 두 권 정도 사서 구도와 비율을 공부했고 블로그도 따로 만들어 제 작업 일기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덩달아 열심이었습니다.

"종이도 다 같은 종이가 아니래. 이 연습장은 색연필 칠할 때 색이 더 밀도 있게 올라간다더라."

"색연필 중에서도 물을 묻히면 수채화처럼 예쁘게 번지는 게 있대. 이거 한 번 써보면 어때?"

본인 일처럼 열성을 다해 저를 지원해줬습니다. 무심하게 스윽 다 떨어져가는 재료를 사다줬어요.

어찌 보면 이제 와서 무슨 그림이냐 그냥 살림에 더 신경 쓰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남편은 단순 취미를 넘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라고 필요한 건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독학으로 8년째. 2022년 저는 인사동의 한 갤러리에서 '하늘매발톱꽃'을 그린 그림으로 공모전에 입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으로 받은 생애 첫 상이었고 다른 분들께도 제 실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뻤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응원해 준 남편 생각에 눈물이 글썽 났어요.

행복한 나날만 이어지는 게 복에 겹다고 생각할 때쯤 작년 크리스마스 연휴에 시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할아버님과 17년을 같이 살았으니 그 슬픔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었겠어요. 특히 남편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할아버님을 기리고 유품을 정리

하고 나니 할아버님이 지내시던 방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를 생각이었어요. 가만 비워두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하고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쓰자고 하면 그러자고 하려 했죠.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방은 당신 작업실로 쓰자."

"뭐? 그래도 괜찮겠어? 나는 여보 마음이 중요해."

"당신이 작업실에서 그림 그리면서 행복해하면 할아버님도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필요한 선반은 내가 주문할게."

남편은 바로 방의 크기를 재서 선반을 주문하더니 구석에 쌓아놨던 제 재료를 차곡차곡 정리해 작업실을 마련해주었어요. 남편의 배려 덕분에 올해 초부터는 저는 저만의 작업실에서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언제나 그림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저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낚시에 흥미가 없었는데 남편을 따라 간 바다에서 손맛이라는 걸 한 번 맛본 이후로는 작업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남편 손을 잡고 낚시를 떠나거든요. 직접 잡은 물고기로 회를 만들어주면 아이들의 얼굴에 '진실의 미간'이 나와요. 맛있다며 코를 팍 찡그리는데 그 뿌듯함이 또 최고입니다.

두 딸은 어느새 고1, 중3이 되었지만 다 컸는데도 이런 말을 달고 삽니다.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아빠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함께할 수 있는 취미가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제 취미는 그림, 남편의 취미는 낚시이지만 둘을 구분 짓지 않고 같이 나누면서 사이가 돈독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희 부부의 취미는 사랑일지도 모르겠어요.

사랑 사랑 사랑

워크숍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애청자

파주에서 첫 직장을 다닌 지 2년쯤 된 어느 여름, 일이 잘 맞지 않아 우울해하고 있던 저에게 학교 선배가 이직을 제안했습니다. 차근히 준비해 경기도 이천의 한 회사로 옮기게 되었고 대망의 첫 출근 날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팀장님께 인사를 드리니 팀장님이 저를 데리고 30여 명의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때 처음 본 그녀는 자판을 열심히 두드리며 업무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의 부름이 다소 귀찮은지 고개를 살짝 돌려 사회적인 미소만 지어주는데 귀여운 얼굴이 딱 제 이상형이었어요. 이제 막 들어온 신입이니 그래도 묵묵히 제 호감을 표현하지 않고 팀에 적응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입사 한 달쯤 되었을 때 팀장님은 1박 2일로 여름 워크숍을 가자고 선언하셨고 팀의 총무였던 그녀를 도와 행사를 준비하라며 제게 부

총무를 맡기셨습니다. 서른 명이나 되는 인원의 숙소와 식사, 레크리에이션 준비까지 일이 상당했기에 그녀와 점심시간마다 만나 식사를 같이하며 가벼운 회의를 해야 했죠. 그녀는 업무 이야기할 때는 제법 진지하고 차가운 이미지였는데 레크리에이션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만큼은 마치 중학생 소녀 같았습니다.

"미워하는 선배, 물풍선으로 맞추기 하면 어때요? 아니다 아니다! 이미지 게임? 그것도 재밌을걸요?"

들떠서 신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더더욱 귀엽더라고요.

워크숍 당일 저희는 행사 준비를 위해 선발대로 먼저 출발했습니다. 함께 가는 차 안에서 그녀는 운전하는 제가 지루하지 않도록 쫑알쫑알 수다를 떨어줬어요. 향수를 모으는 취미가 있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장기 여행을 간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에 대해 아는 게 많아질수록 마음도 더 커져만 갔죠.

여름 워크숍 행사는 무사히 마쳤고 제 머릿속은 온통 이제 그녀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했던가요. 팀장님이 제게 큰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워크숍 부총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큰 행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이걸로 총무팀 둘이 비싼 밥 사 먹어요. 눈치 보지 말고~."

저는 이때다 싶어 팀장님의 법인카드를 소중히 쥐고 회사 근처의 고급 파스타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저희는 저녁 식사와 함께 와인도 곁들였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즈음 조심히 운을 띄웠습니다.

"○○ 씨는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음~ 저는 키 크고 듬직한 스타일이요!"

"어? 딱 난데요?"

"아 뭐야~ ○○ 씨 완전 웃기다!"

유치한 대화였지만 그녀는 저의 얘기에 맞장구치며 웃어주었고 저는 자신감을 조금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괜스레 점심시간마다 커피를 두 잔 사서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고 그녀가 회사 비품을 정리할 때면 슬쩍 다가가 팔을 걷어붙이며 일을 도와주었지요.

한 달이 조금 지났을까요. 그녀가 회사 메신저로 이런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 씨~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친구가 교향악단에 있는데 첫 공연을 한 대서요."

처음으로 업무 연락이 아닌 사적인 내용의 메시지였죠. 저는 야호!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남은 건 고백뿐이었어요. 공연 당일 저는 이번에는 법인카드가 아닌 제 개인 카드로 맛있는 저녁 식사와 와인을 사며 조심스레 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녀는 고맙게도 제 마음을 수락해 주었고 마침내 꿈같은 사내 연애가 시작되었어요.

저희는 약 2년 동안 회사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달달한 연애를 이어 나갔고 마침내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지금은 결혼 10년 차, 어느덧 두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그때 그 팀장님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네, 결혼한 거 내 덕분인 거 알지? 그때 여름 워크숍 때 총무, 부총무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선남선녀를 알아보고 총무팀으로 묶어주신 우리 팀장님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 회사를 이직하라고 조언해 준 학교 선배님까지!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밥상

사라진 택배

김영아 | 경기도 광명시

금요일 저녁에 집에서 손님을 치렀다. 각종 쓰레기 특히 재활용 분리 배출할 박스들이 산을 이루고 있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일요일 오전이었고 나는 내다 버릴 쓰레기들을 미리 조금씩 분류해 놓고 있었는데 "으아~함! 아침 언제 먹어?" 아이 아빠가 알람 시계처럼 일어나자마자 밥 타령이다. 만사가 귀찮은 휴일 아침이라 얄미워서였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수고로 차려진 밥을 먹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꼬장이었을까? 나는 밥 타령을 하는 남편에게 "일단 재활용 쓰레기 좀 치우고 와요"라고 한마디 했다.

아이 아빠는 비를 맞으며 거실 현관문 앞에 놓아둔 종이와 플라스틱, 비닐류와 각종 유리병 등을 열심히 여러 번을 왔다 갔다 하며 내다 버렸다.

그사이 나는 콩나물국을 끓이고 꽈리고추를 쪄서 양념하고 생선 굽고 오이와 맛살로 샐러드하고 멸치볶음과 맛이 잘 든 총각김치로

아침상을 냈다. 그렇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양치하러 현관문 옆 화장실에 들어가려는 순간!

"아뿔싸! 내 택배!"

어제 늦은 오후, 아이 아빠가 택배 왔다면서 현관문 밖에 놓인 것을 현관 바로 앞 거실 바닥에 들여다 놨던 것이 생각났다. 그건 내가 일에 꼭 필요한 교재들이었는데 그게 사라진 것이다.

"설마 그걸 같이 버린 건가?"

서둘러 볼일을 보러 나간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같이 버렸나 보네. 얼른 재활용 수거하는 곳에 가봐. 거기 있겠지."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남편에게 욱하는 마음, 왜 진작 나는 택배를 뜯어 정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 등이 동시에 밀려들면서 나는 바로 집하장으로 뛰어갔다. 우산을 어깨에 끼고 포대들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다행히 주말 오전이라 쌓인 양은 많지 않았는데도 나의 그 소중한 택배 봉투가 보이지 않았다. 점점 짜증이 머리끝까지 차올라 눈물까지 찔끔 났다.

"찾았어?"

속도 몰라주는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없어. 없다고!"

"그러게, 바로 열어서 정리했어야지."

"어이구! 자기는? 왜 뜯지도 않는 택배를 왜 버리냐고!"

미친 사람처럼 오물들이 묻어 있는 비닐 사이를 고개까지 파묻고 뒤지는 와중에 이런 대화까지 해야 한다니.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지고 내 속은 점점 더 뒤집어지고 이제 그만 나와 주면 좋으련만 기도했지만 결국 여러 권의 책이 담긴 택배 봉투는 보이지 않았다.

"에휴 다시 주문하면 되지 뭐. 그래 치킨 두어 번 사 먹은 셈 치자."

가까스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집으로 돌아와 씻고 잃어버린 책들을 다시 주문하려고 온라인 서점 앱을 켰는데 어머나!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났다. 내가 그토록 쓰레기통을 뒤지며 찾고자 했던 택배가 아직 '발송 중'이라고 뜬 것이다. 혹시나 해서 송장번호까지 복사해 택배 앱에 조회해 보니 어라 내일쯤 '배송 예정'이란다. 순간 머리가 띵 했다.

'뭐지? 애들 아빠가 버린 게 내 책이 아니었나? 혹시 더 소중하고 비싼 거였으면 어쩌지?'

가슴이 콩닥콩닥하던 중에 '아~ 맞다!' 기억이 떠올랐다. 애들 아빠가 내다 버린 택배 봉투의 정체 그건 지난밤 내가 신나서 뜯어본 티셔츠 봉투였다. 휴~ 다행이다. 다시 주문을 안 해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면서 바로 미안함과 나의 성급함이 또 애먼 사람을 잡았구나 싶었다.

서둘러 남편에게 톡을 보내 이런저런 상황을 전하면서 앞으로 서로 조심하자 했더니 <알았어>라는 짧은 답이 왔다. 비실비실 웃음이 나왔다. 내 호들갑에 같이 동참해 준 남편이 고맙기도 하고 그는 어쩌면 이토록 항상 무조건 내 편이란 말인가! 내 말만 믿고 본인이 버렸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다시 한번 잘 찾아보라고 말해줬다면 어땠을까? 아니다! 어찌 됐든 이 모든 건 오롯이 나의 잘못이고 주책이다.

고개를 돌려보니 어느새 비는 그치고 맑은 햇살이 거실 가득하였다. 언제 비가 그렇게 왔냐 싶게 하늘이 더없이 푸르고 맑았다.

'저녁엔 남편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담아 정성껏 밥상을 차려내야지!'

물기 가득한 우산을 쫙 펼쳐 놓으며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 우산은 원래대로 바싹 마를 것이다. 우린 또 그렇게 하루를 살아본다.

양희은이 차려드리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밥상

저는 이분에게 이 음식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카레라이스!

왜냐하면 이 댁의 휴일 아침 상차림을 보아하니 음식에 진심이세요. 쉬는 날에도 엽렵하게 차려내는 반찬들 가짓수가 제법 많잖아. 근데 더운 요즘 특히나 휴일 아침엔 만사 귀찮아. 근데 배달 음식이나 외식보다는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밥상을 차리고 싶으니까. 이럴 땐 카레라이스를 만들어 보세요. 만드는 방법도 아주 쉽잖아요.

1. 돼지고기 앞다릿살이나 삼겹살 중 기호에 맞게 준비.
2. 홍당무 양파 호박 감자는 깍두기보다 크게 썬다.
3. 냄비를 예열한 후 식용유와 버터 조금 섞어 돼지고기를 볶다가 소주와 냄새 잡는 월계수잎을 넣음.
4. 물 잡아 준비된 채소를 넣어 익히다가 불을 끈다.
5. 고형카레 넣고 눌어 붙지 않게 저어준다.
6. 채소가 어느 정도 익으면 다시 약불로 뜸 들이듯 마무리.

추천 반찬은 콩자반이나 오징어채무침, 열무김치. 특히 오징어채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참기름 뿌려서 바락바락 주물러 주세요. 그럼 채가 부드러워지는데 고추장과 옛날조청을 넣고 무치면 맛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밥상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용기

정다윤 | 경기도 시흥시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 편이에요. 듣는 걸 좋아한다기보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진지한 대화가 오가는 자리에서 언제나 저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거나 조언을 원하는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곤 해요. 나름 위로의 말도 건네고요.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 엄마는 고민이 있으면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다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저렇게까지 다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마는 모든 걸 다 쏟아놓아야 속이 풀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엄마처럼 친구나 가족들에게 제 얘길 해봐도 고민이나 걱정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괜한 얘길 털어놔서 상대가 힘들지 않았을까 날 이상하게 오해하면 어쩌나 마음이 더 불편해질 뿐 풀리는 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걱정이 있을 땐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점점 더 주변에 말을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친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네 고민이나 걱정도 말해주면 안 돼? 나도 같이 나누고 싶은데 너한테는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너한테 항상 미안해져."

미안해진다는 친구의 말에 제가 더 미안해졌어요. 어쩌면 제가 절친한 친구들에게는 상처를 준 걸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때때로 고민이나 걱정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데 아직은 쉽지 않네요. 절친한 친구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얻을 밥상이 있을까요?

양희은이 차려드리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밥상

저는 이분에게 이 음식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돼지고기 고추장찌개! 왜 이 메뉴를 골랐냐면요. 듣기만 하고 본인의 얘기는 잘 못하는 상태가 편하면 좋은데, 친구 말 듣고 나니 더 미안해지셨다니 친구랑 맵고 뜨겁고 화끈한 음식을 먹으며 눈물 콧물 다 빼면서 마음의 물꼬도 확 트시면 어떨까 해서요.

1. 감자, 애호박, 양파, 대파, 돼지고기 앞다릿살 준비.
2. 채소 썰어 놓고 돼지고기를 볶는다.
3. 식용유 조금+소금+다진 마늘+생강 조금 넣고, 맵싸하게 잡수실 거면 청양고추 2~3개 준비.
4. 볶은 돼지고기에 육수 잡고 끓으면 고춧가루 2+고추장 4+멸치액젓 1+조선간장 2 넣고, 채소 썬 것 다 넣고 끓여요.

작고 따스한 위로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우리 동네엔 애견 인구가 제법 많다.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특히나 머리 희끗희끗한 아저씨가 작은 개를 품 안에 꼭 껴안고 길 건널 때면 웃프기도 하면서 잔잔한 감동을 준다. 젊은 날에 지금 강아지에게 하듯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얘길 들어주고 소중하게 안아준 적이 있었을까? 궁금하다.

개 기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곳은 동물병원이다. 우리 18살짜리 노견 미미는 어디서나 나이로 일단 먹고 들어간다. 얼굴이나 몸매로 봐서는 12살 정도로 봐주면 많이 볼 정도로 곱다.

애견인들의 아이 자랑은 한 번 물꼬가 트이면 끝이 안 난다. 예전 통기타의 메카였던 오비스 캐빈의 한 어른 얘기다. 부친되시는 큰 회장님이 입원 중에 기르던 치와와가 식음을 전폐해서 식구들이 전화를 드리자 바꿔달라셔서는 "얘야, 아빠가 나갈 때까지 잘 먹고 그래야 착하지?" 하니까 그때부터 밥을 잘 먹더라는 얘기.

둘째 아들인 상무 왈, "느네들 껌 씹는 개 본 적 있어? 못 봤지? 우리 애는 단물 다 빨아먹고 껌을 퉤! 뱉는 걸 다 할 줄 알아."

그분이 나이 들고 애들은 미국과 유럽으로 유학 갔고 아내는 바삐 이 대륙 저 대륙을 드나들고 나이 든 할머니가 살림을 살아주는데 외로워서 못 살겠다며 본인의 어린 날 추억의 개 치와와 한 마리를 들였단다.

밤늦어서 일 끝내고 현관문을 열면 자기 구두 속에 그 작은 생명이 자고 있는 걸 보면 왠지 눈물이 핑 돌며 '날 기다려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싶단다. 개가 주는 위로가 꽤 크다.

가끔 점심을 같이하는 선배의 팔순 잔치에 갔다. 그냥 음력 6월생들끼리 밥이나 먹자 해서 생방 끝내고 갔더니만 멋지게 차린 스물댓 분이 홀 안에 가득해서 부담 없이 덜렁대며 갔던 나는 머쓱했다. 내가 어린 날 몸담았던 서울YWCA 와이틴 서클 담당 선생님이 계셔서 옆자리에 앉았다.

74년에 선생님 부부를 제주 협재 해수욕장에서 뵈었는데 사람보다 새떼가 많아 히치콕 감독의 '새'란 영화가 생각나 무

서웠다. 햇살도 강하고 하늘과 바다가 환상이었는데 음료수 하나 사 먹을 데가 없어 갈증으로 힘들었다. 그런데 큰길가에 수박 장수가 있다기에 따가운 길을 걸어 수박 사 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칼도 도마도 없어서 막막한 가운데 현무암 바위에 내려치고는 조각난 수박에 얼굴을 박고 먹은 그 맛은 아직도 기억된다. 세상에 그렇게 다디단 수박이 또 있을까? 그날의 수박은 큰 위로였었다.

그때 버스 타고 내 동생들과 몇 바퀴씩 돌던 제주의 초가지붕, 그 위로 가로세로 새끼줄로 매단 돌멩이들, 그 파란 하늘의 구름과 바다 빛이야말로 잊지 못할 위로의 제주 관광이었다.

바야흐로 휴가철 아닌가? 정작 어디 어디로 떠나기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위로! 강아지를 애틋하게 안고 보내는 집콕이든, 잘 익은 시원한 수박이든, 아주 잘 쓴 드라마 정주행이든 휴가는 위로다. 그렇게 결론 내리면 굳이 먼 길 안 떠나도 작고 따스한 위로가 곳곳에 숨겨져 있다.

곱슬머리

김일중 | 여성시대 진행자

난 곱슬머리다. 유아기 때는 머리숱도 많아 보이고 적당한 웨이브가 오히려 귀여워 보였겠지만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부스스하고 꼬불거리는 내 머리는 가장 큰 콤플렉스가 되었다.

중고등학교 때는 늘 짧은 스포츠머리였지만 그럼에도 직모인 친구들과 난 스타일이 달랐다. 생머리라 불리는 그 친구들의 뾰족뾰족 솟은 앞머리가 부러웠다. 내 앞머리는 그리 짧은데도 소가 핥은 것처럼 뒤로 옆으로 넘어갔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별로였다. 나도 만화 속 주인공처럼 멋들어지게 세우고 싶었는데 늘 주인공의 친구처럼 내 머린 곱슬거렸다.

그렇게 대학생이 되고 스포츠머리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지만 오히려 관리는 더 힘들었다. 그래서 하게 된 매직스트레이트! 그야말로 마술처럼 곡선이 직선으로 바뀌었다. 고개를 돌리면 찰랑거리기도 했다. 그 느낌이 좋았다. 이마 위로 내려온 앞머리가 고개를 옆으로 젖힐 때마다 움직이다니. 담이 걸릴 때까지 고개를 젖혔다.

하지만 그 느낌도 잠시. 새싹이 돋듯 머리가 자라면 뿌리 쪽은 곱슬인데 윗머리만 지푸라기 늘어놓은 것처럼 축 처졌다. 기괴했다. 비를

맞거나 물이라도 닿으면 머리카락은 따로 놀았다. 이건 아니었다.

아나운서가 되면서 그래도 전문가의 손길을 받을 일이 많아졌다. 확실히 전문가는 다르다. 드라이기로 매직기로 내 머리는 차분해지고 단정해진다. 심지어 만지기에 좋은 머리카락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봤다. 직모들은 오히려 모양내기가 힘들어서 꼬불펌도 한다며. 그럼에도 난 안다. 원래 곱슬과 직모가 펌을 한 느낌 중엔 직모가 훨씬 단정해 보인다는 걸. 그들에겐 부스스한 느낌이 없다.

평상시 전문가의 손길을 받지 않는 날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머리를 감았음에도 모자를 쓰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다. 셀프 드라이기 사용 스킬이 느는 장점도 있다.

어르신들의 지긋지긋한 관절염처럼 내 머리카락의 곱슬거림도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습도 높은 장마철에는 정말이지 그 꼬임이 자유분방하다. 새삼 신기하다. 어찌 이렇게 자기주장이 강한지. 그래서 여름만 되면 심란한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곤 했다. 물론 짧게 자를 땐 늘 영화 '아저씨'의 원빈 스타일을 요구한다. 결과물은 그냥 곱슬머리 아저씨다. 그럼에도 오늘 미용실에 가서 짧은 머리로 부탁했고 처음으로 거절당했다. 곱슬머리가 문제냐고 물었고 헤어 디자이너는 대답했다.

"두상이 안 예뻐서 짧게 자르면 안 돼요~."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나에게 왔다

중소기업 대출, 이제 비대면으로 신청하세요

집에서 사무실에서 클릭 몇 번이면

내 기업에 맞는 제안이 찾아옵니다

대출을 위해 하던 수고와 노력
이제 기업은행이 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560호(2024.03.20) 유효기간(2025.03.19) •대출통로 BOX관련 자세한 문의는 BOX고객센터(☎02-729-7633) 혹은 IBK고객센터(☎1566-2566)으로 연락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변제금 포함,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보 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한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게 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IBK BOX 대출통로

사업자라면 누구나 은행방문 없이 대출신청과 상담이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

OPEN	O2O	ONE-STOP
당행 거래고객이 아니라도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은행이 알아서 연락하는** O2O 대출 서비스	복잡하고 다양한 대출심사 서류를 **비대면으로 한 번에 제출**

대출신청 바로가기

IBK기업은행

한 발의 총성 꿈을 향한 울림

땀으로 빚어낸 한 발의 총성이
승리의 함성으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사격 국가대표 선수들의 도전에
IBK기업은행이 함께하겠습니다

IBK SHOOTING TEAM

10M 공기권총 국가대표
IBK사격단 오예진 선수

25M 속사권총 국가대표
IBK사격단 송종호 선수

대한사격연맹 사진 제공